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성소수자의 SNS 커뮤니티 분석

- 한국 젊은층 남성 성소수자의 트위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

Forming Twitter communities - the young Korean male sexual minority's experience

2023 년 0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Anthony Lau

한국 성소수자의 SNS 커뮤니티 분석

- 한국 젊은층 남성 성소수자의 트위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

지도 교수 한정훈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0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Anthony Lau

Anthony Lau 의 국제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02 월

위 원 장 _____ 은기수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오윤아 _____ (인)

위 원 _____ 한정훈 _____ (인)

초 록

본 연구는 젊은층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이 트위터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탐구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한 공간이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민족지 질적 연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한국 남성 성소수자로 구성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남성 성소수자 혹은 앨라이로서의 정체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에서 공유된 정체성은 커뮤니티의 참여 자격이 되고,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은 트위터의 마이크로블로깅 기능 및 특성을 활용하여 다른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을 커뮤니티 안으로 수용하며,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아웃팅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사람을 배제한다. 이의 결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며, 탐구할 수 있는 남성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공간이 형성된다.

주요어 :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형성, 온라인 안전한 공간, 성소수자 안전한 공간, 성정체성 표현, 성정체성 탐구

학 번 : 2020-21321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1 트위터에 대한 설명 및 연구의 배경 1
1.1.2 연구 목적 4
1.2 선행 연구 검토 6
1.2.1 커뮤니티 형성 6
1.2.2 공동체학 7
1.2.4 커뮤니티 사회적 네트워크 및 온라인 커뮤니티 8
1.2.5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커뮤니티에 대한 의미 9
1.2.6 안전한 공간으로서 SNS 활용을 통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형성 및 의미 9
1.2.7 안전한 공간 10
1.2.8 분리주의로 형성된 안전한 공간 10
1.2.9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공간 11
1.2.10 성정체성을 표현하고 탐구할 수 있는 공간 13
1.2.11 본 연구의 중요성 14
1.3 연구 방법 15
1.3.1 민족지 질적 연구 15
1.3.2 면접 진행 과정 및 반구조적 면접법 16
1.3.3 판단표본추출 및 눈덩이표본추출 19
1.3.4 인터뷰 질문 21
1.3.5 인터뷰 전사 및 분석 방법 22
2.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형성 24
2.1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트위터 이용 형태 24
2.2 커뮤니티 참여 자격으로 작용하는 성정체성 28
2.3 공유된 성정체성을 통한 무형적인 커뮤니티의 공간 형성 34

2.4 공유된 성정체성에 기반한 트위터 내 소셜 네트워크 형성 37
3. 공간으로서의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45
3.1 다른 SNS 커뮤니티와 분리된 트위터 커뮤니티 45
3.2 커뮤니티 내 비성소수자 배제 및 '우리'의 공간 형성 48
3.2.1 남성 성소수자의 소셜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한 안전성 49
3.2.2 커뮤니티 내 주제 및 트위터 이용 목적으로 연결되는 현상 51
3.2.3 트위터 내 공간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 55
3.3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 58
3.3.1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트위터의 마이크로블로깅 특징 및 기능 59
3.3.2 완전히 안전할 수 없는 공간 67
4.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의 공간의 중요성 71
4.1 성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 71
4.1.1 일상생활에서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72
4.1.2 성적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공간 75
4.1.3 다른 성소수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 76
4.2 성정체성 탐구 및 정체화할 수 있는 공간 79
4.2.1 다양한 성정체성 및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 79
4.2.2 옳고 고름을 토론하는 공간 83
4.2.3 성정체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의 공간 85
4.3 트위터를 통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성정체성 탐구에 대한 변수 87
5. 결론 92
5.1 연구 결과 요약 92
5.2 연구의 의의, 한계 및 미래 연구 94
참고 문헌 96
Abstract 10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트위터에 대한 설명 및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자신들의 커뮤니티와 공간을 형성하며, 이 형성된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공간이 그 구성원들에게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민족지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트위터 커뮤니티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기반하여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이 한국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지에 대한 경험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배경에 앞서 트위터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트위터는 사진 최대 4 장과 영문 기준으로 240 개짜리, 한글 기준으로 140 개짜리 글자의 길이로 짧은 글을 남길 수 있는 미국 마이크로볼로깅(microblogging)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트위터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트위터에서 소위 트윗이라고 불리는 글을 남길 수 있고 남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남기는 마음 기능, 남의 게시글을 재전송하는 리트윗 기능, 업로드된 트윗에 답글로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태그하여 트윗을 작성할 수 있는 멘션(mention) 기능, 1:1 개인 메시지 혹은 여러 이용자를 초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디엠(DM) 기능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본인의 홈페이지 (타임라인)에서 본인이 원하는 트윗이 뜨도록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구독하는 식으로 다른 이용자를을 ‘팔로우’(follow)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위터상에서 사용자가 구독, 즉 ‘팔로우’한 사람이 사용자의 ‘팔로잉’(following)이 되며, 반대로 이용자를 팔로우한 사람이 사용자의 ‘팔로워’가 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또한, 2021 년 11 월에 트위터 스페이스라는 기능은 이용자가 선택한 팔로워 혹은 타 트위터 이용자가 실시간 음성 대화방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출시된 ‘트위터 서클’은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트윗을 트위터 서클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는 자신이 올리는 모든 트윗이 자신의 팔로워에게만 보이게 하는 비공개 계정 설정과 비슷하다. 다만 트위터 서클 기능은 계정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이용자가 트윗을 트위터 서클로 올리면 그 트윗이 이용자가 지정한 트위터 서클 이용자에게만 보인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처럼 트위터상 상호작용의 기반이 되는 기능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텀블러(Tumblr)를 제외한 주류 SNS 에서 찾을 수 없는 리트윗 기능에서 트위터가 다른 SNS 플랫폼과 갖는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리트윗은 다른 사람의 트윗을 재전송하는 기능을 말하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트윗을 리트윗하면, 다른 이용자의 트윗을 리트윗 했다는 내용의 글이 재전송된다. 또한, 리트윗할 때 자신의 글을 추가하여 재전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리트윗한 트윗은 해당 사용자의 팔로워가 볼 수 있도록 사용자의 타임라인(timeline)[①]과 계정 페이지에 게시된다.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사용자들은 ‘게이 친구 소개’의 약자인 ‘#게친소’ 또는 ‘퀴어 친구 소개’의 약자인 ‘#퀴친소’라는 해시태그(hashtag)를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이 해시태그를 트위터 검색창에 입력하면 수많은 성소수자가 해당 해시태그를 단 자기소개 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유된 트윗들은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사용자들이 해당 자기소개 글을 리트윗하며 팔로워와 팔로우할 사람을 찾고 트위터에서 같은 남성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트위터의 특성은 트위터로 하여금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사용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서로에게 알리고 게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이용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트위터에서 어떻게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은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아직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성소수자의 가상 커뮤니티 혹은 트위터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제공한다.

---

① 타임라인은 로그인한 계정으로 트위터를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홈페이지이며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의 트윗,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이 마음을 누르거나 리트윗한 트윗 등 트윗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트윗의 목록이다.

또한, 다수의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사용자들은 자기소개글에 특정 해시태그를 첨부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나이, 사는 곳, 키, 몸무게 등)와 트위터를 사용하는 목적을 공유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리트윗하면 디엠할게요!'와 같은 구절을 추가하기도 한다. 대부분 공개 계정으로 게친소를 올리며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기도 한다. 게친소에는 리트윗과 마음이 달리고, '친하게 지내요'와 같은 멘션이 달리기도 한다.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팔로우하고 더 나아가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게친소' 등과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성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남성인 동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남성 양성애자(bisexual) 등도 포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 대상을 동성애자가 아닌 '남성 성소수자'로 정의한다. 성소수자는 게이(동성애자), 바이섹슈얼(양성애자), 범성애자 등을 아우르는 용어, 남성 성소수자는 트위터 게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사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 형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또한 탐구한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2001 년부터 2021 년까지 17%에서 38%로 증가한 것은 한국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o, 2022). 하지만 2021 년 기준 스웨덴 79%, 스페인 76%, 캐나다 75%, 아르헨티나 73%, 벨기에 72%, 영국 68% 등에 비하면 아직 인식이 부정적인 편이며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에 가장 긍정적인 스웨덴과는 41%의 차이가 난다(Ipsos, 2021). 또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지하거나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공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한국 인구의 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13%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Ipsos, 2021). 이에 관해 한국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공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인구는 Z-세대의 18%, M-세대의 16%, X-세대의 11%, 베이비붐 세대의 7%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공개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psos, 2021). 또한 정부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2021 년 연령대별 SNS 이용형태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2021 년 기준으로 트위터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 플랫폼 1,2,3 순위로 선택한 인원이 10-19 세의 13.7%, 20-29 세의 25.4%, 30-39 세의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통신정책연구원 b, 2021). 따라서 트위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행위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연령대가 Z-세대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한국에서 Z-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트위터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커뮤니티 구성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밝힘과 동시에 한국의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과 그 지속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성소수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1.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이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러한 경험들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개인적 경험을 다루는 질적 연구 및 민족지의 형태를 띤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의 가상 공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수자인 성소수자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한국의 가상 공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첫 연구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 경험에 대한 연구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본 연구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남성 성소수자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경험하며, 트위터 커뮤니티가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2)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위 두 가지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세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이론적 틀을 반영한 질문이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적 네트워크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이론적 틀을 사용한다. 이에 기반하여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세부 질문으로 답할 수 있다.

1a)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트위터에서 어떻게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삶에서 해당 커뮤니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반영한 질문이다. 이는 특히 성소수자들에게는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안전한 공간(safe space)을 제공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한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크게 다섯 가지의 이유로 성소수자들이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는데 이를 본 연구에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세부 연구 질문을 설정할 수 있다.

2a)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어떻게 성소수자를 수용하는가?
2b)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어떻게 비성소수자 혹은 비커뮤니티 구성원을 배제하는가?
2c)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가?

2d)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탐구하는가?

2e)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들은 어떻게 한국에 사는 성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가?

1.2 선행 연구 검토

1.2.1 커뮤니티 형성

Hillery(1955)는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당시 학계 연구에서 다뤘던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으며 94 개의 정의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그리고 장소임을 밝혔다.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은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졌다. 이재신(2007)은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종합하여 "공동체란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장소"라고 정의하였다.

커뮤니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와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위와 같이 학계에서 다뤄 온 전통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공동체로 표시하였으며 커뮤니티는 전통적 공동체와 현대 사회의 공동체를 종합한 개념이다. 이는 이재신(2007)에서 커뮤니티와 공동체가 사용된 바와 같이 공동체는 전통의 학계 개념에 가까우며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개념은 다음 절인 공동체학에서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트위터라는 가상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를 일컫는 것이며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를 경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2.2 공동체학

본 연구가 집중하는 커뮤니티는 사회적 연결망 제공, 연대감 부여, 대면 사회적 관계 형성, 아이덴티티 공유, 가치관 부여, 소속감 부여 등 여러 사회적 기능을 하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로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이에 관련해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방법론인 공동체학(community studies)이 탄생했고, 공동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사회조직인 커뮤니티를 연구하면서 커뮤니티가 하는 역할에 대해 연구해 왔다(Blackshaw, 2010). 공동체학은 1960 년대부터 공동체라는 개념이 마을과 같은 단순 물리적 사회조직 혹은 공동체에서 탈피하여 기호학적이고, 상상되고, 상상적인 공동체로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발전된 연구 분야이다(Wellmann, 1979; Wellmann, et al., 1988). 즉, 물리적인 공동체보다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며, 상상하는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특히, 공동체학에서 수용된 공동체 이론 중 하나는 Heller(1999)의 공동체 근대화론이다. 공동체 근대화론은 근대 사회의 커뮤니티는 사회 기초 단위인 사회적 조직이었고, 이러한 커뮤니티는 공동체에서 개인의 실질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등 구성원이 속한 물리적인 환경에 국한되는 강한 연대의 끈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현대 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사람의 이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 사회의 공동체는 더 이상 기초적인 사회 단위가 아니며, 현대 생활과 여기에 기반을 두는 커뮤니티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간의 연대성이 약해졌고 사람들은 상상된 공통의 정체성에 의해 커뮤니티에 대한 연대감을 느낀다. 즉, 사람들은 여전히 공동체에 강하게 묶여 있지만 그 형태는 현대 사회로 변하면서 상상된 공동체와 그에 대한 정체성에 기반하는 커뮤니티 연대감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Anderson, 1983). Bauman(2008, pp.120,121)는 현대 사회에서의 커뮤니티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에 더 가깝고 사로 간의 의사소통 및 커뮤니티에 대한 상상된 이미지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1.2.4 커뮤니티 사회적 네트워크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상상된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내의 상호작용도 커뮤니티의 경계를 결정짓는다. Jones(1997)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적 공간의 부재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재신(2007)은 물리적인 공간, 혹은 전통의 개념의 공간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및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커뮤니티의 장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재신(2007)은 모든 공동체에는 경계선이 존재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로 생겨나고 그 커뮤니티의 경계 안으로 진입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빼놓을 수 없다.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는 커뮤니티 형성뿐만 아니라 개개인 의커뮤니티 경험에도 영향을 끼친다. Kelly, et al.(2014)은 커뮤니티 경험은 장소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Kelly, et al.(2014)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다른 성소수자 구성원 커뮤니티와의 인맥이 많고 커뮤니티 내 상호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상상된 커뮤니티는 물리적 커뮤니티와 가상 커뮤니티로 분류될 수 있는데,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상상된 이미지, 정체성 등의 요소들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가상의 공간까지도 확장된다. 특히 Constant, et al.(1996)는 가상 커뮤니티가 개인에게 맞춰진 필터 기능 등으로 개인이 원하는 커뮤니티에만 참여하게 해 줄 수 있는 매개로서 물리적 거리, 집단에서 공유된 역사, 공유된 인구학적 유사점 등과 같은 공동체적인 공통점 없이도 사람들에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분리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상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2.5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커뮤니티에 대한 의미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본인의 성정체성을 수행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우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분 없이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김지은(2020)은 커뮤니티는 성소수자들의 생활공간 안에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해방감과 안정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의 장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학교 내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형성 및 의미에 대해 분석했으며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장소를 구성하고 일상에서 드러낼 수 없는 성정체성 등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손소연 & 이지하(2016)는 이러한 커뮤니티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은 커뮤니티에서 다른 성소수자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다른 성소수자들과 성정체성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성소수자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더더욱 커뮤니티 안에 다른 성소수자들을 찾아다니게 되며 '진정한 이반![②]'이라는 정체성이 강화되어 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성정체성 혹은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정착된다는 것이다.

1.2.6 안전한 공간으로서 SNS 활용을 통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형성 및 의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뮤니티는 오프라인일 때 성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성정체성을 보다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트위터와 같은 성소수자 온라인 공간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억압받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안전한

---

② 이반은 '일반'의 말장난으로 게이 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김지은, 2020)

공간으로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만든다. 이러한 모임은 성소수자를 수용하며 비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커뮤니티에서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1) 자신의 성정체성을 표현하고 2) 자신의 성정체성을 탐구하며 3) 한국에 사는 성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한다. 이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2.7 안전한 공간

Lewis, et al.(2015)은 안전한 공간(safe space)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및 공간(site)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공간의 안전과 안전감은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집단의 부재와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모임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성소수자 혐오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위험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집단이 분리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공간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렇게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약자들의 모임에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이 배제됨으로써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신을 편하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형성된다.

1.2.8 분리주의로 형성된 안전한 공간

위와 같은 분리주의는 안전한 공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The Roestone Collective(2014)에 따르면 안전한 공간의 분리주의적 특징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안전감을 안겨주고 이에 따라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이러한 안전한 공간에 대해서는 상상된 하나의 정체성을 (본 연구에서는 남성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말한다.) 공유하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서로 자기 경험을 공유하며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분리주의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이 성소수자라는 자격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연대의 끈이 형성된다(Aronsson, 2020). 더불어, 이렇게 성정체성에 기반한 수용적, 배제적 커뮤니티 관계가 형성되며 그 커뮤니티가 무엇이고 누가 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선이 생기면서(Hartal, 2018)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와 같은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배제되고 수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9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공간

Chaplin (2014)는 프랑스에서 1980 년대에 1970 년대부터 인권 운동가로 활동해 온 레즈비언 여성들의 가상 공동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인터넷 시대 이전에 프랑스 레즈비언 여성들은 미니텔(Minitel)이라는 비디오텍스 폐쇄망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로 간 즉각적인 의사소통, 단체 채팅 및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가상적 상호작용에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 상호 이해, 공유된 정치적 비전, 사회적 소외감 및 소외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커뮤니티 연대의 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공유된 정치적 비전, 사회적 소외감 및 사회적 소외에 대한 경험은 해당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시켜 커뮤니티 구성원간의 관계가 더 강화했다. 즉, 온라인상 상호작용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이다.

Hanckel & Morris(2014)는 호주에서 사는 젊은 성소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성소수자로서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억압감을 해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즉, 이러한 상호작용과 커뮤니티 공간은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감성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의 안전한 공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소외감을 느낀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커뮤니티 소속감은 사회적 안정감을 주어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Miño-Puigcercós, et al.(2019).

Gray(2009)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소수자들이 LGBT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드러내지 못한 성정체성을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연구를 제공한다. Gray (2009, p.125)는 이 현상을 '퀴어 실체화'(queer realness)라고 부르며 이는 성소수자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퀴어로서 살아가는 경험이 실체화되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변환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이것의 한 매개체가 되어 Gray 는 온라인상의 커뮤니티를 '퀴어 실체화의 장르'라고 일컫는다. 여기서도 이러한 온라인상 퀴어 실체화는 성소수자들이 퀴어로서 자신의 존재가 소외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온라인에서 다른 성소수자들과 만든 네트워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위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성소수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Robards, et al.(2020)는 텀블러(Tumblr)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젊은 퀴어들이 경험하는 텀블러의 퀴어 커뮤니티에 대해 분석했고, 텀블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소수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소외감에 대한 위안을 얻으며, 퀴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젠더와 성정체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렇게 젊은 성소수자들이 서로 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위안을 받는 과정에서 텀블러 퀴어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하나의 공동체가 생성된다. 자신의 일기, 집과 같은 개인적이고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컨텐츠와 이에 대한 생각들이 공유되는 텀블러와 같은 공개적인 공간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퀴어라는 정체성과 다양한 젠더들에 접근할 수 있고, 결국 텀블러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자신의 성정체성,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이 교착(intersect)하는 공간이 된다. 또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기에 텀블러가 특히 퀴어나 젠더이분법적이지 않은 다양한 젠더정체성(gender diverse)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기 힘든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했을 때, 한국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 (Ipsos, 2021). 따라서 Roberts, et al.(2020)에서 살펴본 텀블러가 영어권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처럼 한국에 사는 성소수자에게는 트위터와 같은 가상 공간이 안식처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1.2.10 성정체성을 표현하고 탐구할 수 있는 공간

DeVito, et al.(2018)도 성소수자들은 SNS 에서 자신이 설정한 플랫폼, 독자 혹은 보는 사람, 기능, 그리고 원하는 규범을 통해 자신을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DeVito, et al.(2018)는 소수자에게 개방적이지 않을 수 있는 트위터 공간 내에서 인종 소수자인 흑인들이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Lucero(2017)에서 위에서 살펴본 다른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SNS 와 같은 가상의 공간들은 성소수자들에게 젊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표현하고 성정체성에 대한 이슈를 탐구하고 접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냈다. 즉, SNS 는 성소수자들에게 중요한 공간이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된다.

Green, et al.(2015)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소수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사용한다고 밝혀졌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작용한다.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커뮤니티적 소속감을 추구하고 다른 사회적 소수자와의 소통을 통해자신의 정신건강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는 사회 운동도 전개한다. 이러한 사회 운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발언, 실질적인 사회 운동 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연구는 트위터 역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Drushel(2010)에서는 SNS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검색어에 따라서 긍정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는 빈도가 달라진다는 것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마이스페이스(MySpace)에서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게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동성애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면에 ‘동성애’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부정적인 내용을

주로 볼 수 있었다. 즉, 특정 키워드 혹은 검색어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서로 이러한 긍정적인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며 본인이 어떤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소수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Z 세대 인구가 많이 사용하는 트위터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특정 검색어를 통해 다른 성소수자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탐구하고 표현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11 본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띤다. 앞에서 살펴본 Chaplin(2014), Hanckel et al.(2014) 그리고 Gray(2009)의 연구는 인터뷰와 민족지학 접근법으로 사람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바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 있으며 사람들이 커뮤니티로부터 얻는 소속감과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프랑스, 호주, 미국 등과 같은 LGBTQ+(성소수자) 수용도가 높은 국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LGBTQ+ 수용도가 낮은 한국에서 존재하는 가상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OECD,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 경험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한국 성소수자들의 주요 경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8편의 논문이 선행되었는데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 경험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이며 성소수자 가상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작 한국에서 존재하는 커뮤니티에 대해 선행된 연구는 가상의 커뮤니티가 아닌 대학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 및 실질적인 만남을 통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에 대한 연구만 존재하며,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여태까지 두 편의 논문밖에 없다(이현진 외, 2021).

하지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상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느끼며 경험하는 커뮤니티와 그 과정은 커뮤니티 형성 자체에 대해 많은 것을

밝힐 수 있다. 이의 한 예시는 이태원 성소수자 클럽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로 들 수 있는데, 박준홍 외(2021)는 이태원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에 널리 보도되면서 뉴스 기사 댓글로 '쾌락을 추구하는 공간', '불쾌한 공간' 등의 발언이 발생한 현상에 대해 분석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파되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집합 장소이자 클럽인 성소수자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어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집합소인 클럽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상 커뮤니티 등과 같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실생활에서 사람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1.3 연구 방법

1.3.1 민족지 질적 연구

본 연구는 공동체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민족지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선행 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민족지적 접근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DeVito, et al., 2018; Hanckel & Morris, 2014; Robards, et al., 2020). 특히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원과 개인적인 반구조적 인터뷰를 활용하여 해당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으며 질적 연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를 연구하는 공동체학에서 사용되는 민족지 접근법(ethnography)은 대체적으로 한 집단의 삶의 방식에 대한 연구 방법을 말한다. 민족지 접근법은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lived experiences)을 규명하는 연구 방법이며 공동체에서 겪는 삶의 경험에 대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가장 심도 있게 그릴 수 있는 사회 연구 방법이다 (Blackshaw, 2010). 특히 민족지 접근법을 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취향과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가상 공동체가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이 삶의 경험을 겪으며 이러한

경험이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민족지 접근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 공동체의 경험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취합해 분석하는 연구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류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한 소수자의 이야기를 규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에 소속된 개개인들이 어떤 경험과 사회 이슈를 겪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Hancox,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접을 통해 직접적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본인의 공동체 경험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심층 면접을 통한 민족지 질적 연구 접근법을 선정한 이유는 트위터의 검색 기능이 한계적이기 때문이다. 한 계정의 모든 트윗을 분석하려면 해당 계정의 프로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살펴야 하며 프로필에 검색 기능이 없기에 특정 트윗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Marwick, 2013). 이러한 구조 때문에 트위터에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이 올린 글만 골라내어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형성 및 안전한 공간 형성을 규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특정 글보다 개인적인 경험이 또한 이렇게 수많은 트윗과 각 계정의 팔로워 및 팔로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 툴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법이 필요한데 이는 심층 면접을 통한 민족지 질적 연구 접근법만큼 개인이 경험하는 바를 규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심층 면접의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은 개개인의 이야기와 경험을 토대로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경험되고 있고, 또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1.3.2 면접 진행 과정 및 반구조적 면접법

면접 질문은 크게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트위터 커뮤니티를 경험하는 바에 기반하여 공동체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반구조적(semi-structured)으로 진행하였다(Frost, et al., 2014). 구조적 심층 면접은 이미 정해진 면접 질문의 틀만 따르며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미리 준비한 면접 질문을 바탕으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함께 이용하여 자유롭게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Adams, 2015, p.336). 반구조적 심층 면접 방식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그리고 '왜'와 같은 개방형 질문과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선택된 면접 질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위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밝히고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Adams(2015)에 의하면 면접관과 인터뷰 참여자의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데 최적인 시간이 1 시간이며 본 연구에서도 면접을 대략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면접관과 인터뷰 참여자의 피로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성소수자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연구대상자들이 편하게 답변하고 인터뷰 참여자와 라포르를 형성하기 위해 인터뷰 시 대화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동시에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편안한 면접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인터뷰는 1 시간에서 1 시간 반 동안 진행하였으며 대면으로 1 회만 진행하였고 2 달에 걸쳐 진행하였다.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서 심층 인터뷰를 자료 모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트위터를 사용하는 젊은층 한국 성소수자 남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연구자는 모든 인터뷰를 전체 녹음하였으며 선행 연구 검토에서 언급된 분석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의 녹음 파일을 전사하였다.

또한 트위터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형성 및 경험 대한 견고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총 10 명의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신뢰성이 있는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직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인터뷰 참여자들이 아웃팅[③]에 대한 우려로 연구자에게 본인 혹은 본인의 경험에 대해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는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면접 시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성소수자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자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③] 아웃팅(outed)은 본인이 성정체성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는 인터뷰 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옆에서 인터뷰 시 오가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적당한 소리 크기로 들리며 녹음이 잘 될 수 있도록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장소를 선택했다. 이는 주로 스타벅스, 할리스 커피 등과 같은 체인 카페였으며, 10 회의 면접 중 1 회는 연구 참여자가 선택한 조용한 칵테일 바가 면접 장소로 선정되었다. 연구자는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반구조적 심층 면접법을 선택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선정된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연구자는 선행 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모든 연구 항목을 포함해서 질문하였으나 연구자는 인터뷰 참여자가 연구 대상이 된 불편하고 인위적인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유지했다. 따라서 진행된 인터뷰들은 질문이 질문지처럼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중간에 연구자가 인터뷰 참여자의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뷰 참여자의 말에 수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연구자는 소정의 커피 기프티콘이나 인터뷰 참여자와 합의한 보상으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보상을 제공했으며,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에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및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설명하였다. 더불어, 연구자는 인터뷰 참여자와 인터뷰 진행 초반에 아이스브레이킹(icebreaking)의 차원에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어렵지 않은 질문부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러한 질문은 트위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트위터를 왜 사용하고 있느냐 등과 같은 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인터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는 연구자가 인터뷰 참여자와 친밀감, 또는 라포르(rapport)를 쌓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라포르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연구 참여자에게 신뢰할 만한 인터뷰 답을 얻는 데에 중요하다(Adams, 2015).

연구자가 성소수자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자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접근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2022 년 제 23 회의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를 통해 연구자가 선정한 첫 번째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또한, 연구자는 눈덩이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표본추출법으로 연구자는 남성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널리 알려진 첫 번째 연구 참여자를 통해 다음 인터뷰 참여자들을 소개받았으며 이는 이미 커뮤니티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자도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있는 성소수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자는 인터뷰 첨여자와 라포르를 형성했다. 또한, 연구자는 인터뷰 참여자에게 연락을 취할 때 연구자 본인 및 연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연구자는 인터뷰 참여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인터뷰 진행 시간과 장소, 그리고 대면 인터뷰 여부를 인터뷰 참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뷰 종료 이후에도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연구자가 인터뷰 진행 횟수를 1 회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2 회 진행할 경우 참여자들이 피로를 느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 역시 인터뷰는 1 회만 진행하였고, 이는 1 회로 인터뷰를 진행해도 충분히 살펴보려는 커뮤니티에 대한 골자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Robards, et al., 2020; Kelly, et al., 2014; DeVito, et al., 2018).

1.3.3 판단표본추출 및 눈덩이표본추출

젊은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면서도 3 개월 안에 완결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같은 성소수자 관련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만든 인맥을 통해 판단표본추출(judgment sampling)과 눈덩이표본추출(snowball sampling)으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판단표본추출은 연구자가 판단하는 통제변수에 기반하여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눈덩이표집은 연구자가 처음에 선정한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인맥을 통해 연구자를 위해 더 많은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는 표집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눈덩이표본추출의 대상이 될 첫 인터뷰 참여자를 판단표본추출로 선정한 뒤, 10 명의 인터뷰 참여자를 눈덩이표본추출로 표집하였다. 한국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현황을 밝히기 위해서 10 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람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다. 이것이 본 연구의 판단표본추출의 기준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트위터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본 연구의 초점이기 때문에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으면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어떻게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를 구성하는지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표본추출(non-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추세나 패턴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는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에 기반한 커뮤니티 형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비확률표본추출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Sibona, et al.(2020)에 따르면 본 연구처럼 탐구적이며 아직 선행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현상에 대해 조명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비확률표본추출은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및 커뮤니티에 대해 이해하려는 탐구적인 분석에는 도움이 된다. 따라서 표집이 된 인터뷰 참여자들은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대변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새로운 현상을 조명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인터뷰 참여자를 찾기 위해서 연구자는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1. 팔로워 및 팔로잉 수

Huberman, et al.(2009)는 트위터 사용자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척도와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팔로워 수와 팔로잉 수가 많을수록 게시글을 올리는 개수(포스팅 수)가 증가하며 팔로워와 팔로잉 수가 많을수록 트위터에서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친구의 수도 늘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인터뷰 참여자 선정 시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팔로워 수나 팔로잉 수가 많은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2. 나이

한국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성소수자 중에 20 대, 10 대, 그리고 30 대의 순으로 사용자가 가장 많고 40 대는 거의 없다. 또한, 대한민국 연령별 트위터 이용률을 보면 2020 년 기준으로 20 대와 30 대가 11.2%, 10 대는 7.8%로 나타났으며 이는 6.2%인 40 대, 5.1%인 50 대 그리고 3.4%인 60 대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통신정책연구원, 2021). 따라서 트위터 커뮤니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연구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나이를 10 대, 20 대 그리고 30 대로 설정하였으며 나이라는 통제변수 때문에 답변의 차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0 대 후반 2 명, 20 대 초반 2 명, 20 대 중반 3 명, 20 대 후반 1 명, 30 대 초반 1 명, 30 대 중반 1 명의 구성으로 인터뷰 참여자를 골고루 선정하였다. 특정 연령대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연구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인터뷰 참여자에게 다음 인터뷰 참여자를 소개받을 때 연구자는 특정 나이의 인터뷰 참여자 소개를 부탁하였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를 비롯한 모든 연구 대상자는 법적 성인이다.

3. 기타 변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트위터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호작용하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개개인의 경험을 위주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커뮤니티에 대해 민족지적 접근법을 통해 기초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직업, 소득 등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위 세 가지의 변수는 모두 판단표본추출로 첫 인터뷰 참여자에게 적용하고, 이후 9 명의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팔로잉 수와 팔로워를 제외하고 나이라는 변수만 적용하였다.

1.3.4 인터뷰 질문

인터뷰에서 물은 질문은 선행 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커뮤니티 형성과 커뮤니티가 구성원들에게 지니는 의미에 대한 요소를 포함하여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트위터 커뮤니티 형성’, ‘트위터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 ‘트위터 커뮤니티의 유지’,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트위터', '본인에게의 트위터의 의미', '트위터 커뮤니티 경험' 등의 주제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트위터에 초점을 두며, 인터뷰 질문은 연구 질문과 선행 연구를 반영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트위터 커뮤니티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성소수자를 수용하는지

2) 트위터 커뮤니티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비성소수자를 배제하는지

3)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4)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지

5) 트위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한국에 사는 성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소외감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터뷰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반구조적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인터뷰 중 인터뷰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연구자의 판단 하에 질문이 변경되었다.

1.3.5 인터뷰 전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연구자는 각 인터뷰를 전사(transcribe)하여 코딩하였다. 각 전사 파일은 녹음 파일의 80% 이상을 전사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녹음 파일을 전사한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이 개인 혹은 한 집단의 경험, 지식, 태도, 가치관, 신념 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Drisko, 1997 에 따르면 어떠한 사회 현상이 어떻게 논의되고 경험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사 역시 자세하게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 등을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연구자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고 이는 선행 연구 검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로서의 트위터,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트위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분석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인터뷰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여 컬러코딩을 진행했는데 코딩한 부분 중에 각 인터뷰 참여자의 경험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을 광범위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여 본 논문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모든 인터뷰 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밝힘으로써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형성

2.1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트위터 이용 형태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의 트위터 이용 패턴과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인터뷰 참여자	나이	직업	성정체성
1	A	20 대 중반	대학원생	남성 시스젠더 양성애자
2	B	20 대 중반	취업준비생	남성 시스젠더 동성애자
3	C	20 대 중반	회사원	남성 시스젠더 동성애자
4	D	20 대 초반	대학생	남성 시스젠더 동성애자
5	E	30 대 중반	회사원	남성 시스젠더 무성애자
6	F	10 대 후반	대학생	논바이너라 남성애자
7	G	10 대 후반	고등학생	남성 시스젠더 동성애자
8	H	20 대 후반	대학원생	남성 시스젠더 폴리로맨틱 호모플렉시벌
9	I	20 대 후반	대학원생	젠더퀴어, 퀴어 (남성에게의 성적 끌림)
10	J	30 대 초반	회사원	남성 시스젠더 동성애자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및 트위터 활동 정보 (1)

구분	인터뷰 참여자	트위터 계정 개설 기간	트위터 활동 기간	일일 트위터 사용 시간	트위터 이용 주 방법
1	A	약 6 년	약 6 년	약 1 시간 반	친목
2	B	약 7 개월	약 2 년 반	2 시간 ~ 3 시간	뉴스, 친목
3	C	약 1 년	약 7~8 년	최소 5 시간 이상	지인과 교류
4	D	약 5 년	약 5 년	약 3 시간	친목
5	E	약 6 년	약 3 개월	1 시간 ~ 2 시간	소통, 교류
6	F	약 3 년	약 5 년	약 2 시간	친목
7	G	약 1 년	약 5 개월	약 3 시간	친목
8	H	약 8 년	약 7 년	2 시간 ~ 3 시간	친목
9	I	약 4 년	약 4 년	약 6 시간	뉴스, 친목, 인권 활동, 사회 운동
10	J	약 9 년	약 9 년	약 6 시간	인권 활동, 사회 운동, 친목, 취미 공유 및 교류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및 트위터 활동 정보 (2)

<표 1>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 직업, 성정체성, 트위터 활동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경우, 10 명 중 5 명은 남성 시스젠더(cisgender) 동성애자이며, 9 명은 남성에게 성적 이끌림(sexual attraction)을 느끼며, 모든 연구 참여자는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인식된다(male presenting).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을 정체화(identify)하는 성정체성은 다양하지만 자신의 젠더가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인식되고 남성에게 성적 이끌림(sexual attraction)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트위터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남성에게 성적 이끌림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의 개설 기간과 트위터 활동을 시작한 기간도 최소 3 개월부터 최대 9 년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젊은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인터뷰 대상자 E 처럼 트위터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부터 J 처럼 9 년 이상으로 트위터 활동을 장기적으로 해온 커뮤니티 구성원들까지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 및 인터뷰 참여자들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 수는 100 명 대부터 1 만 8 천 명 대, 트위터 계정 팔로잉 수는 100 명 대부터 1000 명 대로 트위터 계정 팔로워 수와 팔로잉 수도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는 1 만 명 이상으로 집계될 수 있으며, 팔로잉 수는 평균적으로 최대 1000 명 대나 2000 명 대까지 집계되고 팔로워가 많은 경우는 있지만, 팔로워가 1 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수준에서는 팔로잉이 팔로워만큼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일일 트위터 이용 시간의 역시 약 1 시간 반부터 약 6 시간까지 매우 다양하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목적은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연구 참여자 10 명 중 8 명은 트위터를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0 명 중에서 소수로 트위터를 뉴스를 보는 용도, 사회 운동을 하는 용도,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과 소통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 H 가 “목적의식을 가진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냥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런 굉장히 편안한 나의 친구 만들기 공간”이라고 트위터를 묘사한 것처럼 뚜렷한 목적을 위해 트위터를 사용하기보다는 트위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트위터 이용 경향에 따라 트위터상의 상호작용 방식도 변화한다. 주 이용 패턴이 친목 도모인 경우, 주로 자신의 타임라인에 등장하는 트위터 이용자의 글에 마음을 누르거나, 리트윗을 하는 등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올리는 일상적인 내용, 자신의 생각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류가 대면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만 교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같은 친목 목적이더라도 그 상호작용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형태와

무관하게 트위터에서 같은 성소수자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이 이들 상호작용의 공통점이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지인과 교류하는 트위터 이용법은 친목 목적의 트위터 이용법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커뮤니티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취미 공유의 트위터 이용법도 마찬가지로 트위터 내 여러 가지의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과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남성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뉴스를 보는 용도로 트위터를 사용하는 경우 리트윗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뉴스나 기사 웹사이트 링크를 올린 글을 리트윗하여 자신의 피드에 올리기도 하고, 자신이 관심있는 뉴스에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인용 리트윗을 하여 자신의 피드에 올리기도 하며, 리트윗을 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트윗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접하는 뉴스는 정치, 일상 등의 주제가 포함되는데 뉴스 용도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남성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합법화 등 여러 가지 성소수자 관련 뉴스를 다양하게 접한다.

인권 활동 및 사회 운동의 트위터 이용법도 이와 비슷한 형태이다. 인권 활동과 사회 운동 참여를 목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뉴스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리트윗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인터뷰 참가자 J 는 '이슈파이팅'(issue-fighting)이라고 지칭하였고, 이는 인터뷰 참가자 I 에 따르면 성소수자로서 당당하게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성소수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진다. 트위터 기능의 특성상 인용 리트윗이나 멘션으로 여러 댓글을 서로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통해 트위터에서 이슈파이팅에 참여하는 남성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 정체 관련 이슈 등의 대한 토론이 다수 이루어지는데, 페미니즘, 성소수자 이슈 등과 같은 주제로 당사자로서 공감하면서 트위터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리트윗 기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아닌 다른 성정체성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트윗과 의견을

널리 퍼뜨릴 수 있으며 이러한 트위터 이용 패턴은 사회 운동의 행위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용 패턴을 통해 형성되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층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에게 위협적인 사람을 배제하면서 자신들만의 안전한 공간을 형성한다. 둘째, 이런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같은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정체성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셋째, 성소수자로서의 일상을 공유하고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에 살아가는 성소수자로서 느끼는 사회적 사외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는다. 넷째, 이러한 공간에서 다른 성소수자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성정체성에 관련 담론에 참여하며, 다양한 퀴어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나 퀴어문화축제 등 성정체성에 관련된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탐구하고 자신을 정체화하는(identify)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2.2 커뮤니티 참여 자격으로 작용하는 성정체성

여기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성정체성은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자격에 충족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구성원이 되려면 1) 커뮤니티 당사자인 남성 성소수자여야 하거나, 2) 남성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앨라이(ally)[④], 즉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지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커뮤니티 참여 자격은 커뮤니티를 구성원들을 통해 결속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는 상호작용해 보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이기 때문이다. 이는 첫 번째 연구질문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어떻게 성소수자를 수용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이러한 커뮤니티 구성원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

④ 앨라이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LGBTQ+ 용어다.

수용된다. 이러한 커뮤니티 참여 자격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말한 바는 다음과 같다.

> R[⑤]: 트위터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모든 성소수자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다른 정체성별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 G: 저는 좀 나뉜다고 생각해요. 게이랑 레즈[⑥]랑 특이 더 많이 다르고 게이, 레즈, 그리고 바이 양성애자, 범성애자 은근히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게들은 게이들끼리 놀고 레즈는 레즈들끼리 놀고 바이는 바이들끼리 놀고 범성애자들은 따로 놀고 진짜 약간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 딱 존재하는 것 같아요.
>
> G: **보통 게이들은 레즈들이나 아니면 바이들과 맞팔[⑦]을 안 해요.** 친해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저도 엄청 친해져서 뭐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트위터에 있는 팔로워 정도밖에 생각 안 하셔서 가끔 보면 오히려 약간 병적으로 싫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양성애자 같은 분들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G는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게이'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며 이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성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느끼기에는 트위터라는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의 성정체성에 따라 커뮤니티가 나뉘며 커뮤니티 간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는 경계선이 존재한다. 즉,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는 이용자가 남성 성소수자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기준에 따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잠재적 커뮤니티 구성원과 상호작용할지 여부가 결정되며, 서로가 같은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연결될지가 결정된다.

---

⑤ R는 연구자를 지칭하는 약자이다.

⑥ 레즈는 레즈비언 혹은 여성 동성애자의 약자이다.

⑦ 맞팔은 서로 팔로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만약에 내가 퀴어 커뮤니티 한 계정에 퀴어 커뮤니티랑 다른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룹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 팔로워가 돼 있으면 섞이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계정 분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계정, 심지어 퀴어 계정, 속마음 계정 따로, 그러다 보니까 한 계정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동시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A 는 자신이 참여하는 트위터 커뮤니티에 따라서 트위터 계정을 따로 분리하여 한 계정으로는 한 커뮤니티에만 참여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계정을 분리하게 하는 커뮤니티의 특성은 뮤지컬과 같은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고, 퀴어(성소수자)와 같은 하나의 성정체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 가 언급한 속마음 계정의 경우,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널리 이용하는 계정의 유형 중 하나지만, 속마음 계정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는 성정체성만큼 하나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분리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트위터 이용 용도나 목적이 아닌, 사용자의 정체성이다.

하나의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결집된 커뮤니티의 하위 커뮤니티를 묶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남성 성소수자 혹은 게이라서 같은 트위터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남성 성소수자들 중에서 서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팔로우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소셜 네트워크 내의 하위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등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 성소수자들도 존재한다.

A: 근데 보통 한 커뮤니티 안에 있는 계정이 여러 가지 안에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뭐 예를 들어 베어, 레즈비언… 레즈비언도 부치분들 따로 약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끼리 친해지는 건 맞는데 각자가 친해지는 건 맞는데… 그룹들끼리. 그렇다고 해서 이 그룹별로 계정을 만들 필요는 없죠. **이 비슷한 계열끼리 한 계정으로 다 퉁치니까 이게 커뮤니티로 기능하는 것 같아요.**

…

A: **어차피 다 같은 게이 커뮤니티니까…** 어느 정도 조금 다른 건 있죠. 스타일이 좀 다른 거랑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는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어느 범위안이라고 생각해요.

A: 드랙하시는 분들을 본다고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내가 드랙하지 않고 잘 모르지만 그런 하는 것처럼 한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지' '재밌겠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아이돌 좋아하는 커뮤니티 용도는 이거라도 양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이 커뮤니티.** 이 용도는 개성을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커뮤니티인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트위터 내에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게이 커뮤니티' 혹은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안에서도 다수의 하위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덩치가 큰 남성 성소수자를 소위 '베어(bear)'라고 일컫는데 트위터에서는 베어들이 다른 베어들과 서로 맞팔하면서 큰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 그룹은 대부분의 인원들이 남성 성소수자이기에 큰 차원에서 '남성 성소수자' 혹은 '게이' 커뮤니티에 속하며 다른 계정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드랙(drag)[⑧]하는 트위터 이용자들도 대부분 같은 남성 성소수자이지만, 서로 맞팔의 계기가 되는 드랙이라는 취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취미를 계기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하지만 A 의 답변처럼 드랙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남성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남성 성소수자' 혹은 '게이'라는 정체성의 프레임 내의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수용된다. 이는 드랙이나 베어는 단독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본질적으로 '남성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이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⑧ 드랙은 본인의 성별과 다른 성별로 분장하는 것이다. 드랙은 주로 공연이나 젠더 표현을 위해서 하는데, 드랙을 하는 사람을 '드랙퀸' 혹은 '드랙킹'이라고 부른다(Rupp & Taylor, 2016).

B: **그게 뭐 성소수자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 친구여도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성소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굴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친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뭐 교류를 하는 친구 중에 이제 트랜스젠더도 있고 여자 친구도 있고 안드로진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정말 성소수자라는 하나의 뭐라고… 굳이 벽을 세우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은 성소수자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이성애자인 친구들을 안 사귀려고 하는 건 아니다.

B: (나랑 교류하는 사람은) 그렇죠. **앨라이여야죠.** 왜냐하면 그냥 이성애자여도 만약에 저 친구가 내가 성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불편해하고 나를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데 굳이 내 곁에 둘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교류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정말 당사자거나 아니면 앨라이거나...

위와 같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격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지지자이다. 이는 성정체성으로 묶인 커뮤니티에서 그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구성하는 성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마찰이 생기며 B 의 답변처럼 '나를 해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찰과 위협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R: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D: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끔씩 정치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트위터의 **다른 그룹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을 올리면 같이 싸우게 돼요**. 그걸 보면 이미 저 사람이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에 없는 거 보면 어차피 못 어울리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한다).
…
A: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 배타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웃팅 걱정도 있고… 가끔 가다가 커뮤니티에 일원인 척하고 와서 아웃팅시키는 계정들도 가끔 있잖아요. (R: 있어요?)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세 번 봤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 하는 계정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위협들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다들 조금 성수수가 아닌 사람들의 팔로우를 안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D 와 A 는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앨라이가 아닌 이성애자들을 배제하는 현상을 논한다. D 의 경우, 앨라이가 아닌 이성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마찰이 발생한다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A 의 경우,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앨라이가 아닌 이생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남성 성소수자들에게 아웃팅이라는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다. 특히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위협들에 계속 노출이 되는' 사건들을 경험삼아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의도적으로 앨라이가 아닌 이성애자들과 팔로우하지 않음으로써 상호작용을 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트위터에서 당사자와 앨라이가 참여하는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트위터의 다른 커뮤니티들과 분리되며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내에서 당사자와 앨라이가 뭉치는 현상을 보인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한국 남성 트위터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의 성정체성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G: (자신의 타임라인에 이성애자가 뜨는 것에 대해) 전 안 떠요. 커뮤니케이션을 아예 안 해서 저는 싫어한다기보다는 사실 관심이 없어서. **보통 이쪽 분들이 트위터 친구가 되는 경우가 썸타기 직전의 관계**?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이랑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완벽히 친구는 아니고 약간의 **미묘한 관계로서 트위터 친구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G 는 같은 남성 성소수자를 팔로우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G 는 같은 성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 즉, G 의 답변처럼 자신과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든, D 와 B 의 답변처럼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관계든 '남성 성소수자'라는

성정체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티 참여 자격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공통의 정체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커뮤니티 참여 자격으로서의 성정체성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2.3 공유된 성정체성을 통한 무형적인 커뮤니티의 공간 형성

이러한 대부분 남성 성소수자 및 앨라이로 구성된 한국 남성 트위터 커뮤니티는 하나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이 절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커뮤니티가 어떻게 공간을 형성하는지 분석한다.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하나의 공간이자 장소이다. 전종한 외(2008)에 따르면 공간은 "보편적인 사람이 공유하는 삶의 영역이자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을 뜻하"며 장소는 "특정한 지점에서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사회관계로부터 형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남성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만남의 장소가 된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공간에 대해서 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D: 이게 성소수자로서 조금 더 공간이라고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서 살면서 구분을 할 수 없잖아요.** 얼굴만 보고 성소수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단 내 친구의 친구라거나 아니면 그 프로필을 봤을 때 소개되어 있는 글을 읽으면 알 수 있고 그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있고 웃긴 거나 아니면 중요한 글 같은 걸 서로 공유해서 보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약속을 잡아서 같이 놀기도 하는 걸 보면 공간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 D: 저는 약간 늘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스머프(smurf) 마을.** 스머프 마을이 되게 사람들이 안 사는 자연에 숨어 있잖아요. **뭔가 어느 정도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는 조금 약간 나를**

가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해주고 그 안에서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스머프 마을 같다고 생각해요.

…

D: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친구들처럼 학교 같기도 하고 학교 반 보면 친구들 중에 친한 애들도 있고 인사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평범한 마을.

D 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현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설명한다. 한국에서 현실에서는 서로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사는 반면에 트위터 공간에서는 대부분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남성 성소수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서로가 성소수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하나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종한 외(2008)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트위터는 성소수자들이 공유하는 성소수자의 삶의 영역인데, 여기서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만남은 D 가 말하는 트위터 내 친목이다. D 를 비롯하여 B, C, G, J 등은 커뮤니티 내 친목 목적으로 활동하는 남성 성소수자들은 서로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단계의 상호작용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로 간의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서로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행위, 소위 맞팔이라는 행위부터 시작된다. 서로의 글에 마음을 누르며 친밀감을 쌓은 후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글에 멘션을 남기면서 대화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멘션으로 상호작용하다가 어느 한쪽이 디엠을 보내면 대면으로 만날 약속을 잡는다. 오프라인에서 먼저 만나는 것 역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만남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는 트위터이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가 무형적인 이유는 '특정한 지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위터는 물리적인 장소나 공간은 아니지만, 서로 상호작용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이므로 공간과 장소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재신(2007)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는 이러한 의미에서 무형적인 공간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공간의 울타리는 명확하지 않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 온라인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한 이용자가 트위터를 사용하는 모든 남성 성소수자를 팔로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처럼 그 울타리를 측정하기가 힘들다. 또한, 커뮤니티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때문에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베어, 드랙퀸 등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취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남성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커뮤니티 구성원을 연결해주지만 그 효과가 완전하지 않다.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하위 정체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정체성들로 또 따로 하나의 하위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B 는 트위터에 선정적인 컨텐츠를 올리는 남성 성소수자들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B: 사실 트위터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교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을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랑 나랑 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이 정도인 거고, 굳이 그걸로 결속을 하고 방향성을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성애자든 퀴어든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묶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
> …
>
> R: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가 좀 있는 걸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그런 트위터의 형태나…
>
> B: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죠. 떨어져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굳이 제가 거기로 발길을 안 들일 뿐인 거지 그냥 하나의 **그냥 평야에 (성소수자들) 다 같이 있는 건데 내가 거기로 안 갈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구분되어져 있진 않다.**
>
> …
>
> B: 겹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
> …
>
> B: 펼쳐져 있는 공간에 있는 거고 거의 다 섞여져 있지 않고 그냥 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는 공간이다.

B 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성정체성이든 하나의 그 성정체성은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하나의 공통점에 지나지 않는다.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비슷한 공통점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미, 정체성, 올리는 컨텐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중 여러 목적이나 취미를 가지고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남성 성소수자나 앨라이라면 여러 그룹에 속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더 큰 맥락에서는 남성 성소수자 정체성이라는 상위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취미, 목적 등에 따라서 어떤 그룹과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과 커뮤니티를 묶고 있는 특성이 남성 성소수자라는 성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담론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정체성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연결해줄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정도로 구성원 간을 단단히 결속시키는 효과는 약하다.

2.4 공유된 성정체성에 기반한 트위터 내 소셜 네트워크 형성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의 형성은 맞팔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맞팔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성정체성만 공유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같은 남성 성소수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자신과 개인적인 공통점이 있는 사람만 맞팔하고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맞팔하기 전에 서로의 프로필에 있는 트윗, 리트윗, 마음을 눌렀던 기록(마음함) 등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다. 이에 대해서 H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H: 트위터라는 공간 자체가 본인의 팔로우 팔로잉으로 기본적으로 구성돼 있는 그룹핑이잖아요. 한 개인으로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팔로우 팔로잉 서로 맞팔이 돼 있는 경우는 서로 어느 정도 **대화가 맞고 이런 (인권에 대한)관심 분야가 있고 본인이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불편함이 적은 편에 속한 사람들을 팔로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팔로우 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먼저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G: 저는 보통 얼굴을 보고 팔로우합니다. 제가 보기에 되게 기준이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형이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담 없는 얼굴, 좀 친근한 얼굴들을 조금 팔로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H 는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팔로우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트위터에서는 하나의 계정을 팔로우하면 상대방의 트윗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뜨게 되는데, 이렇게 맞팔하게 되면 H 가 말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트윗이나 리트윗을 보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방의 트윗을 보았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팔로우하게 된다. H 는 '대화가 맞고' 인권에 대한 '관심 분야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다른 계정을 팔로우한다. G 는 팔로우할 상대방이 같은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성적 이끌림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팔로우한다. 다른 연구 참여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같은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혹은 앨라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한 후 상대방의 관심사, 가치관, 취미, 개그코드 등을 파악한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이렇게 먼저 상대방이 자신과 맞는 사람인지 먼저 파악하고 팔로우한다.

F: 저는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팔로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자꾸 눈에 띄네, 내 알림창에 자주 뜨네, 하면 일단 팔로우를 하는 편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탐라[⑨]에 두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이 사람이 쓰는 트윗들이 나랑 맞다 하면 그때부터 친밀감이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 **친밀감이 생겨서 팔로우를 한다라기보다는 팔로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을 판단한 다음에 친밀감이 생긴다 이게 올바른 순서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R: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F: **어떤 성향이라는 게 보이죠.** 예를 들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동조할 수 없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일

---

⑨ 탐라는 타임라인의 약자이다.

수도 있고 어떤 사상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혐오 표현들을 무지하게 난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과하게 플러팅을 건다든가 조금 자꾸 뭔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준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꺼리는 편이고요. 그냥 편안하게 나랑 얼굴 붉힐 일 없이 뭔가 사상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F 는 대부분의 자신의 타임라인에 자주 뜨는 사람을 팔로우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지 않고 팔로우하는 것은 아니다. F 는 경우 그래도 다른 연구 참여자처럼 상대방이 우선 같은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하고 팔로우한다. 여기서 F 가 말하는 '친밀감'은 맞팔하고 나서 그 맺어진 팔로우 관계를 유지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위와 비슷한 기준으로 구성된다. F 의 인터뷰 답변을 보면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 인권에 있어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정체성에 기반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등으로 상대방을 파악한 후에 팔로우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처음으로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그 시발점인 맞팔 뿐만 아니라, 그 연결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과정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지속되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트위터가 공간, 또는 장소로 작용하여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구성원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지속되는 모든 과정이 커뮤니티의 지속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서로의 글에 대해 마음누르기, 리트윗하기, 멘션남기기,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디엠 등과 같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트위터에서 서로 맞팔이 되어 있더라도 강력한 연결성을 가진 인간관계는 형성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B: 밖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트위터를 알게 된 지인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편이니까 **그래서 트위터에서 먼저 '이 친구가 어떤 친구구나'라는 걸 먼저 알게 되죠.**

B 는 2.3 절에서 말한 것처럼 트위터는 같은 남성 성소수자와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한다.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처음으로 형성하는 맞팔부터 시작하여 마음, 트윗, 리트윗 등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다. 이렇게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파악해 가면서 친해지며, 특히 친목의 경우 실질적인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R: (트위터에서 친해지고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만나는 게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A: 근데 이게 뭐가 메인이냐의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트위터를 하는 행위 자체가 트위터를 하는 게 목적이면 사실 만날 필요가 없는데 대인관계 형성 그런 링킹의 목적이면 만나는 거지만 언젠가는 한 번 들어가는 것 같긴 하고…

R: 만남이? 그 링킹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링킹을 함으로써 서로 서로에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A: 저는 그래요.

R: 그럼 이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면 커뮤니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서로 링킹을 해서…

A: 그렇죠. 하나의 포매트. 근데 이게 로컬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역 커뮤니티도 사실 보면 다 아는 게 아니라 친한 옆집 아줌마 윗집 아줌마 아내(?) 집 아저씨 알고 **이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 알고 약간 이런 구도잖아요.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 같이 옆 반 달고 내 반 다 알고 우리 거 달고 이런 정도의 커뮤니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느슨한?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여기서 A 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만남까지 이어지는 친목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커뮤니티 구성원 서로를 연결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지 말한다. 우선 커뮤니티에서는 친목 목적의 경우 만남이 친목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서로 트위터에서 상호작용하다가 오프라인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A 는 '로컬' 혹은 '지역 커뮤니티'로 묘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커뮤니티는 지인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다. 반면 C 및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커뮤니티에서 친목 목적으로 트위터를 사용하더라도 트위터에서만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만남이 그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트위터에서 이어진 만남에 대해 E 는 트위터를 만남을 위한 예선전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E: 내 얼굴은 공개하고 다른 건 공개하지만 대부분 이름은 알려주지 않는다. 이름은 더 친밀해지고 나서 공개한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트친소를 하고 뭘 많이 공개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인 정보 중 하나인 이름은 공개를 안 한다라는 게 약간 그런 걸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선이라는 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오픈을 할 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부터 더 나머지는 좀 더 친해지고 나서, 혹은 만나서,** 혹은 다른 창구에서, **다른 창구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와 너에게 더 내가 나에게서 더 보여줘도 돼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에서 다른 창구로 넘어가는 게.

여기서 E 는 친목 과정에 만남이 포함되면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특히 트위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다른 SNS 와 달리 계정 개설 혹은 회원 가입 시 개인의 전화번호와 연동할 필요 없이 자신이 설정하는 닉네임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E 에 따르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트친소를 통해 이용자의 나이, 취미 등을 공유하고 이용자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지만, 익명성은 친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 장벽을 허물고 더욱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려면 트위터에서의 상호작용 후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만남까지 성사되어야 된다. E 에게 서로가 친해졌다는 신호는 실질적인 만남에서 자신의 본명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만남이 친목 과정에 포함되면 서로 간 더 끈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한국 남성 트위터 커뮤니티 역시 더 견고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서로 간의 인간관계 형성을 증진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답변에 의하면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연결의 중심이 되는 사람도 존재한다.

> E: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트위터라는 집단에 물론 들어갔을 때 그런 커뮤니티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랜덤 추천을 해야 할 텐데,** 처음에 그 친구를 통해서 트위터라는 걸 시작을 했을 때 그런 관계망이라든가 그런 게 없이 커뮤니티 같은 게 없고 특별히 교류의 빈도라든가 이런 게 동등하다면 다양한 뭔가가 떴어요. **그렇지 않았던 것도 보면 충분히 어떤 그런 알고리즘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근데 그러면 그 커뮤니티라는 것이 단순히 유형의 어떤 예를 들면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기보다 페이지는 어떤 쐐기로서 존재한다기보다 아까는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가상화폐 개념처럼 모두가 서로 이 각각의 트위터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서로가 있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냥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어떤 커뮤니티의 주체가 되는 특별한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커뮤니티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 E: 그러고 그런 개념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어떤 측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셀럽으로 올리는 게 아닌가**. 트위터 내에서 네 그렇게 됐다고 느끼는 성소수자들이 분명히 몇 명 있었거든요. 딱 몇몇 사람만 거치면 거의 그냥 어떤 사람을 팔로우했더니 갑자기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글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든가.

여기서 E 는 트위터의 알고리즘을 통해 자신에게 추천으로 뜨는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계정을 언급한다. 트위터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 추천에 대한 알고리즘은 자신의 계정이 전화번호와 연동된 경우 본인이 추가한 연락처와 그외에 본인의 위치, 본인의 트위터 활동(즉, 트위터에서 상호작용하는 계정), 트위터와 연동된 다른 사이트에서의 활동, 홍보된 계정 등으로 자신이 팔로우할 만한 계정을 추천으로 보여준다(Twitter, 2021).

무형적인 커뮤니티에는 구성원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계정들이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 내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 는 이런 계정들을 '셀럽'에 비유한다. 이들은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팔로워가 많으며 다른 남성 성소수자와 팔로잉 팔로워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많이 형성한 계정들이다. 이러한 소위 커뮤니티 내 '유명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E 는 다른 인터뷰 답변에서 퀴어문화축제 공식 계정을 예시로 언급한다. 이 계정은 많은 성소수자가 팔로우하고 있고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계정은 팔로워가 많은 만큼 트위터 검색 기능에서 검색결과로 잘 등장한다. 이에 대해 J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R: 그런 관심사를 가진 비슷한 사람들을 어떻게 찾는 건가요?
>
> J: 우선은 검색을 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단어 검색도 하고 검색창에, 그런 것도 있고 **유명한 셀럽 같은 팔로워에 들어가서 구경도 해 보고 팔로우도 하고 먼저 질문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J 는 처음에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트위터 활동을 시작했을 때 특정 단어를 트위터 검색창에 검색했다. 여기서도 커뮤니티 내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이러한 셀럽 계정들은 또 역시 소셜 네트워크적인 인간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상호작용이 많이 오가는 계정들이기 때문에 검색창에 검색하면 검색창 윗부분에 잘 뜬다. J 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트위터에서 다른 남성 성소수자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은 트위터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로 뭉쳐 존재하며, 커뮤니티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간의 상호작용으로 유지된다. 여기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서로를 팔로우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친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을 서로 연결해준다. 또한, 팔로워가 많고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한 계정이 이 커뮤니티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셀럽' 계정들은 검색창에 검색하면 자주 등장하는 상호작용이 많이 오가는 계정으로 신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공간으로서의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남성 성소수자로 구성된 커뮤니티로서,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로서 다른 성소수자와 상호작용하며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나 성소수자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소셜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성소수자를 수용하고 비성소수자를 배제하며, 하나의 안전한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 이러한 공간이 커뮤니티 구성원이 계속 유입되고 커뮤니티 안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ronsson, 2020; Hartal, 2018; The Roestone Collective, 2014). 이 장에서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어떻게 성소수자를 수용하고, 비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안전하고 독립적인 공간이 형성되며, 트위터의 기능으로 인해 어떻게 하나의 분리된 안전한 공간이 형성되는지 분석한다.

3.1 다른 SNS 커뮤니티와 분리된 트위터 커뮤니티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구성원 사이에서 다른 SNS 와 차별화되는 공간으로 경험되고 있다. 한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답변에 따르면 트위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구별되는 트위터만의 분위기가 있으므로 다른 SNS 공간과 차별화되는 공간이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I: 근데 성소수자인데도 트위터하는 사람은 싫어요!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주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 I: 일단 저는 그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남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이 트위터하는 사람이

싫다고 했을 때에는 조금 높은 확률로 약간 **사회 문제, 특히 페미니즘 리스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트위터라는 것은 일단 여초의 sns 로 있으니까, 여자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트위터는 이제 자조적으로 되게 음침한 사람들이 좀 쓸 때가 있잖아요. 플텍 걸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욕도 막 뒤에서 하고 약간 플텍계로 하고 인용알티하고 약간 그런 음침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되게 부정적인 평가들이긴 하죠.**

여기서 I 는 트위터가 사회 문제 혹은 위에서 J 가 말한 '이슈파이팅'(issue-fighting)과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트위터의 기능 중 플텍(프로텍티드 트위터 계정 혹은 비공개 계정), 인용알티 (인용 리트윗)이라는 기능을 언급하며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필터링 과정 없이 내뱉는 트위터의 분위기와 성격을 언급한다.

R: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J: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지만 트위터 내에서도 트위터는 그냥 간단한 말로 **그냥 계속 이제 쉴 수 없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저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위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J 는 I 와 비슷하게 각 SNS 별로 고유한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J 는 140 자짜리의 짧은 글만 올릴 수 있는 트위터의 기능을 언급하면서 트위터에는 짧은 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언제든지 쉽게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한다.

C: 트위터가 확실하게 준 하나의 지금의 이미지이지 않나 해요. 원래 이제 트위터의 명목도 아무 말이나 써라 하고 만들었던 게 시초 SNS 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처럼 **'나 오늘 되게 꾸미고 나왔어', '어디 놀러 가'에 하나의 어쩌다 한 번씩 올리는 그런**

글들이 아니라, 나 지금 밥 먹고 뭐 할 거고 놀 거고 밤샐 거고, 아무거나 다 적고 내 생각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이 공간이 존재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런 교류도 없이 아무도 만나지는 않지만 트위터에서만 정말 교류만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

C: 확실히 저는 이 SNS 가 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자유롭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좀 제지가 없이.** 그러니까 **인스타는 무조건 사진을 올려야 하는 SNS 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진을 박으면서 글을 쓰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또 페이스북은 물론 이 글만도 적을 수는 있지만 여기(트위터) 여기에서 '나 오늘 밥 먹어' 이런 아무 말이나 하는 공간의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은) '나는 오늘 뭐 했어' 이거인 거고, 여기는 '나는 뭐 할 거야', '뭐 했다', '뭐 할 거고' '이따가는 이제 뭐 할 거야'까지 뭔가 다 담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있으니까.**

C 는 트위터에 올리는 내용과 다른 SNS 에 올리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트위터의 짧은 글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마이크로블로깅의 특징이 언급된다. C 는 트위터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게시글을 올릴 때 사진을 필수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과시의 성격이 강한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있다. 페이스북에는 트위터에 비해 장문의 글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J: 그 SNS 마다 특징이 다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은 진짜 장문의 글을 쓰면서 격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길게 토론을 한다는 생각도 있고, 인스타그램은 내가 잘 산다, 그런 느낌 내가 잘 사는 사람, 보여주는 비추어지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트위터는 진짜 내면에 있는 본심과 어떨 때 가볍게 헛소리 정도 할 수 있는 약간 가벼움.** 그것도 헛소리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위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지네요.

…

J: 우선 트위터 안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너무 **시끄럽다. 정치적으로 시끄럽다. 문란하다 문란한 것도 있고 약간 너무 정신없다라고 해서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야기 주제가 또 **트위터에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J 는 특히 글의 길이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을 말한다. 페이스북은 글이 장문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에 이어지는 토론도 치열하게,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반면에 트위터는 언제든지 편하게 빠른 속도로 글을 올릴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적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SNS 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J 에 따르면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이용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개하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인식이 있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자유롭게 올리기 때문에 '문란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짧은 글을 자주 올리기 때문에 '정신없다'는 인식이 있다.

이처럼 각 SNS 마다 서로 다른 인식이 있으며, 각 SNS 에 나타나는 이용 목적 및 패턴의 차이에 따라 해당 SNS 의 분위기도 다르게 인식되고 경험되고 있다.

3.2 커뮤니티 내 비성소수자 배제 및 '우리'의 공간 형성

위와 같이 트위터에 있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다른 SNS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트위터 내에서도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다른 트위터 커뮤니티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성소수자가 아닌 비성소수자,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사람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내에서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국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성소수자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같은 맥락에서 성소수자에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을 비성소수자와 동시에 배제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하나의 계정을 팔로우할

때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며 본인에게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고 본인의 정치적 성향, 관심사 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면 팔로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배제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형성한다. 이 절은 이러한 안전한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3.2.1 남성 성소수자의 소셜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한 안전성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팔로우 기능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에서 남성 성소수자나 앨라이를 수용하면서 비성소수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사람을 배제하며 남성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서로 이야기하고 만나는 등 상호작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

> D: 예를 들어 일단 저는 남성 게이니까 남성 게이들끼리의 대화를 실제로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레지비언 관련 이야기가 잘 안 넘어오고 그리고 레지비언 쪽에서도 게이 이야기가 잘 안 넘어가요.** 아마 **알고리즘 탓**도 있을 거고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들만 보니까 그런 건데…** (후략)
>
> …
>
> D: 왜냐하면 글을 내리다 보면 추천글이 가끔씩 뜨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게 트위터는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팔로잉을 하면 그 사람의 거, 그것밖에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거 팔로잉을 하면 팔로잉한 사람들 위주로 보게 되잖아요.**
>
> 근데 이제 보통 남성 게이들이 팔로잉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남성 게이들이거나 아니면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팔로잉하고 팔로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팔로잉 팔로워가 이렇게 체인처럼**

묶여서 그 안에서 알고리즘이 형성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남성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컨텐츠) 넘어와도 안에서 그냥 무시를 하거나 넘어오기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D 는 트위터에서 한국 남성 성소수자로 구성된 커뮤니티 안에서 구성원들이 올리는 글을 다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보기 힘든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커뮤니티에서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주로 팔로우한다. 이는 남성 성소수자, 앨라이, 또는 남성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둘째, 트위터에서 계정들을 팔로우하면 자신의 타임라인에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들의 글들이 주로 표시된다. 셋째, 트위터 알고리즘으로 인해 자신이 관심이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되어 트위터가 타임라인에 글을 추천하는데, 자신이 팔로우한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 성소수자라면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있는 계정의 글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부분 남성 성소수자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남성 성소수자가 올리는 컨텐츠가 커뮤니티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어울리지 못하는 혐오 발언, 성정체성으로 일치되지 않은 다른 성정체성의 트위터 이용자 등의 내용이 커뮤니티 안으로 잘 진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형성된 폐쇄적인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남성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른 남성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분리된 안전한 공간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팔로우하지 않음으로써 배제하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커뮤니티에 어울리는 남성 성소수자, 앨라이나 남성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을 팔로우함으로써 수용한다. 또한, 이러한 '안정성'은 크게 아웃팅에 대한 걱정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 A 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A: (신상이) 응 공개됐으니까. 아웃팅당하는 거지. 근데 트위터는 사실 아웃팅당하려면 당할 수 있지만, 구조 자체가 성소수자의 끼리의 약간 공간이라는 것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내가 팔로우를 이렇게 잘 안 받고 뭐 하고, 그니까 필터링 좀 하면,

위험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못 끊는 것 같아.
…
A: 사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서로 아무도 없는 계정을 팔로우를 하는 것보단, **내 친구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을 팔로우하게 되잖아. 이러면서 내 친구들이 이 친구를 담보한다? 안전을 담보한다?** 그니까 하다 못해 알고 보니까 성소수자들이 아니라, 앨라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팔로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잖아**.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라고, 그니까, 휴먼… 휴링크라고 해야 되나?

R: 누가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는지를 보고…

A: 보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내 친구들이 만약에 팔로우하고 있으면 안전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고, 반대로 이 사람도 아 내 친구들이 이 사람이랑 알고 있네? 그럼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A 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의 안전성이 아웃팅에 대한 위험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A 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낸 채로 남성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공간이기에 아웃팅당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공간은 구성원들이 같은 성정체성의 구성원들만 팔로우하는 특성 때문에 아웃팅에 대한 걱정을 줄여준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이 사회 관계망 내에서 구성원들의 팔로우 현황을 보며 상대방이 안전한 사람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남성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이 커뮤니티는 남성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된다.

3.2.2 커뮤니티 내 주제 및 트위터 이용 목적으로 연결되는 현상

트위터는 남성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이유는 구성원들의 성정체성 때문만이 아니다. 같은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아웃팅당할 위험성이 적어지는 것뿐이지 같은 남성 성소수자라고 해서 아웃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험성을 더더욱 감소하기 위해서 성정체성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트위터 이용 목적, 또는 본인이 올리는 컨텐츠의 내용의 주제에 따라서 상대방을 팔로우할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서 커뮤니티 내에서는 성정체성 뿐만 아니라 성정체성과 동시에 친목, 취미 공유 등 트위터 이용 목적과 자신의 컨텐츠의 주제 별로 작은 서브 커뮤니티(sub-community)가 형성되어 성정체성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트위터 내에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더더욱 하나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J: 우선 제가 좋아하는 걸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인권 활동을 하고 있다든가, 두 번째는 이제 저랑 같은 페티쉬를 좋아한다던가 관심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취미랑 그다음에 저 말고도 이제 다른 팔로워들하고 겹치는 분들이 많으면 팔로우 하는 게 없지 않나…**

R: 왜 많이 겹치는 사람들과 좀 팔로우를 하시나요?

J: 저 사람은 약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있고 두 번째는 차별적이지 않겠다. 예를 들면 SNS 에서는 이제 저랑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페티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면 이제 트위터 밖에, **외부에서 제가 활동을 할 때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J: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문란한 이런 문화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J 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련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페티쉬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팔로우하며 자신이 원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J 는 자신의 페티쉬가 사회적으로 문란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취미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같은 남성 성소수자는 물론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팔로우함으로써 자신의 성정체성과 자신의 취미를 동시에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H: 굉장히 고정적인 루틴이긴 한데 처음 들어와서 나는 뉴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친소 이런 것들을 하죠. 자신의 얼굴을 올리고. **사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퀴어라는 공간이 아웃팅 위험이 크잖아요.** 그런데 **트친소나 이런 걸 보면 사진을 굉장히 편하게 올려요. 자신이 이렇게 글을 올리면 아웃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위험도를 아는지는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퀴어들은 **적정 정도 선에서 지켜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좌우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 조금은 이제 그런 섹슈얼한 것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몸 사진까지. 그래서 그런 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팔로우 팔로잉을 늘려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 R: 그러면 처음에는 본인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정보를 드러내야 된다. (H: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트위터에 트위터 커뮤니티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 H: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퀴어계에서도 퀴어라고 전체적으로 묶여 있을 뿐이지 그 내부에는 굉장히 SM 플레이 쪽이시거나 아니면 진짜 친목계인데도 어떠한 분류나 동아리처럼 예를 들어서 그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도 있고** 어떤 쪽은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완전하게 전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대화하는 멘션이나 아니면 **그런 소통에 조금씩 참여하는 과정으로 소통하는 접촉면을 늘려나간다, 늘려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속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정보를 소개하는 것보다 느리겠죠.**

H 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아웃팅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언급하면서 대부분 같은 남성 성소수자로 모이는 공간에서 주는 안정감을 준다고 말한다. 이 안정감 때문에 남성 성소수자 구성원들이 트위터에서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역서 H 는 트위터에서 성소수자 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통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자신의 성정체성인데, 그것이 다른 남성 성소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된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최소한 자신이 남성 성소수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트친소와 같은 글로 자신의 나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팔로우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자신이 남성 성소수자라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드러내고 나이 등 다른 개인정보는 드러내지 않은 채 다른 남성 성소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면 이 공통점을 통해 충분히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충분히 다른 남성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J 와 H 가 말한 취미나 관심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커뮤니티 형성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1 순위가 성정체성이고, 2 순위는 성정체성 외 관심사, 취미 등이 된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남성 성소수자들로 구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커뮤니티 내 구성원 아웃팅에 대한 자신의 위협성이 적어진다. 이 때문에 H 의 답변처럼 공간에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내면 더 빨리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형성된 공간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팔로우 기능을 활용하여 아웃팅에 대한 상대방의 위협성을 파악한 다음에 위협적인 사람을 배제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수용함으로써 하나의 성정체성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고 남성 성소수자가 아웃팅당할 위험성이 적은 안전한 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정체성의 사람이 배제되고 또

수용되는 과정에서 Hartal(2018)처럼 어떤 사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형성되면서 위험성이 낮은 사람들만 커뮤니티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안전한 공간이 된다.

3.2.3 트위터 내 공간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

위와 같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의 계정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 다음에 공간의 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검증하고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런 검증 과정이 트위터에서 가능한 이유를 살펴본다.

H 의 인터뷰 답변에 따르면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다음과 같이 상대방을 파악하고 검증한다.

> H: 가장 첫 번째는 바이오나 아니면 트친소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직관적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직관적이고 조금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좀 글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저 남자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빈발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 좋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섣부른 판단은 금지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그런 식의 간접적인 유추도 하긴 합니다.

여기서 H 는 트위터에서 본인이 직접 어떤 사람인지 기재해 놓은 컨텐츠를 파악하는 것이 직관적인 파악, 상대방이 트위터에서 마음을 눌렀던 글, 리트윗했던 글, 올렸던 글이나 사진을 보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간접적인 파악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직관적인 파악은 수많은 상호작용의 디지털 기록 중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커뮤니티에서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가끔씩 한번 길게 올리는 트친소나 자신의 프로필에 짧은 글로 자신의 성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기재하는데 이는 상당히 적은 양의 정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를 제외한 다른 상호작용은 트위터 이용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하기 알려면 상대방의 트위터 디지털 기록을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한, H 는 직관적인 정보든지 간접적인 정보든지 상대방을 파악하고 검증할 때 상대방이 같은 남성 성소수자나 앨라이인지를 집중적으로 본다. H 의 경우처럼 남성 성소수자로서 "저 남자 괜찮은 것 같다" 등과 비슷한 발언으로 남성에게 성적 이끌림을 느끼는 남성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글을 관찰함으로써 2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방이 자신에게 안전한 사람인지 여부를 검증한 후 안전한 사람이면 팔로우하고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면 팔로우하지 않음으로써 커뮤니티 공간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검증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트위터에서 리트윗, 마음, 트윗 등 디지털 기록이 남는 다양한 트위터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남성 성소수자로서 자신에게 안전한 사람을 수용하고, 위험한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자신에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

> C: 그런데 어떤 걸 좋아하는지? **마음함만 들어가도 보이잖아요.** 또 **어떤 걸 리트윗 하는지 이 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이분이 어떤 말들을 적는지를 봐도 이분의 그래도 성격이나 스타일이 조금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향적인 것만 봐도? 아니면 어떠한 문장 이런 구사력 안에서도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그것마저도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마저도 처음에 안 보여진다면 뭔가 너무 접선이 없지 않나.

여기서 C 는 트위터에서 보이는 한 계정의 많은 정보를 살피며 상대방이 어떤 취향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상대방에 대해 파악한다고 말한다. 특히 C 는 공개 계정 및 비공개 계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공개 계정의 경우 마음함, 리트윗 기록, 트윗 기록 등 자신에 대한 정보가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커뮤니티에 있는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검증하고 상대방을 파악하는지에 대해서는 J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R: 또 상대방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이 있나요?
>
> J: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갔다 온 사진? 또 두 번째로는 그런 페티쉬 플레이를 한다 그걸로 통해서 약간 사진과 또는 동영상.**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리트윗하거나 마음을 누르는 거, 그걸 보는 것 같아요.

J 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상대방을 팔로우거나 상대방의 팔로우를 받을 때 상대방이 같은 성소수자인지 파악한다. 이러한 파악을 위해 상대방의 사진과 트윗, 리트윗, 마음 등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남긴 디지털 기록을 살펴보는데 J 는 사진을 통해 상대방이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퀴어문화축제 혹은 퀴어 퍼레이드에 다녀온 사진 등 본인이 성소수자이거나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관적인 디지털 기록을 집중적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남성 성소수자나 앨라이이며 안전한 사람으로 판단되면 상대방을 팔로우하거나 상대방의 팔로우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사회적 관계망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커뮤니티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같은 남성 성소수자 혹은 앨라이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메개체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I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I: 근데 특히나 성소수자의 경우는 그 경계가 조금 더 공고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일단은 나에게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성적 지향, 정체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폐쇄적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어 **너 나랑 친구해! 갑자기 남이 그러면 사실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랑 친구하고 싶지는 않은데 약간 **우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봐 볼까? 그러면 약간 그게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I는 이러한 검증 과정 및 이에 따라 팔로우하는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한다. I 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주로 남성 성소수자이며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트위터라는 공간에서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강하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이러한 맞팔의 관계를 형성했을 때 맞팔한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러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은 하나의 커뮤니티 안으로 수용된 커뮤니티 구성원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기준은 남성 성소수자나 앨라이라는 자격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도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주로 같은 남성 성소수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남성 성소수자라는 성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커뮤니티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즉,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은 트위터에서 남성 성소수자로서 자신에게 안전한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트위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검증한다.

3.3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팔로우 기능을 활용해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를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수용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답변에 따르면 트위터의 마이크로블로깅 기능 역시 성소수자로 하여금 트위터를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기 편하고 위험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 절에서는 트위터의 어떤 기능이 안전한 공간을 형성하며, 이 안전한 공간을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3.3.1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트위터의 마이크로블로깅 특징 및 기능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자신의 성정체성만으로도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다른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성소수자들이 많이 이용하며 편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경험한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다른 SNS 와 달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해 최소한으로 드러내도 충분히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트위터에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참여할 때 자신이 친목 목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할 것인지, 단순히 트위터 내에서만 친구 관계를 만들려는 목적인 것인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공유할지를 정할 수 있는데,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에 대해 드러내는 것에 대한 정도가 광범위하게 수용된다. 이러한 트위터 기능의 특징에 대해 G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G: 아무래도 **이쪽 사람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트위터가 가장 크기도 하고** 트위터가 가장 장이 넓으니까 편해서 쓰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블루드도 있고 잭디도 있고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잭디는 보통 만남이나 짧은 만남이나 아니면 연인, 번개 같은 걸 좀 목적으로 하고, 블루드는 방송 위주로 하는데, 근데 트위터는 뭐 하고 싶으면 스페이스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채팅 같은 걸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자랑을 하고 싶으면 자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눈팅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기능이 좀 많으니까 뚜렷한 목적이 없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G 는 트위터의 기능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트위터가 한국 남성 성소수자가 많이 이용하며 다른 데이팅 어플에 비해 그 기능이 다양한 만큼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른 데이팅 어플은 연애 감정에 기반한 만남을 목적으로 남성 성소수자를 찾으려는

것이 목적인데 트위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목, 취미 공유, 인권 활동 등 남성 성소수자와 상호작용하는 목적이 다양하다. 여기서 상호작용의 형태도 다양하다. G 의 답변처럼 스페이스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트위터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일상을 트윗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자랑할 수 있는 등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이뤄진다.

같은 맥락에서 트위터는 남성 성소수자 혹은 그 앨라이에게 진입 장벽이 낮은 SNS 공간이다. 또한, 이렇게 트위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위터는 남성 성소수자에게 자유로운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는 자신에 대해, 특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드러낼 수 있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 성소수자가 다른 남성 성소수자와 상호작용하기에 자유롭고 안전하다. 이에 대해 I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I: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일단 사용자가 많고, 그걸 드러내고 있는 사용자가 많고, 익명이나 가면을 쓸 수 있고, 익명이나 가면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플텍이나 아니면 서클, 공개,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내가 쓰는 글이 어디서 얼마만큼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거를 조정할 수도 있는** 애초에 그러면 또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드러내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해서도 그 레인지가 훨씬 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해야 될까요?

> I: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 프사를 걸고 이름 내 본명을 쓰는 게 약간은 조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트위터는 그걸 사실 안 하는 게 더 맞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게 약간 무명화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큼 내가 드러낼 수 있는가를 에 대한 자유도가 훨씬 높아요.

I 는 트위터 기능을 통해 자신에 대해 얼만큼 드러내는지를 조절할 수 있는데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자신을 드러내는 척도에 관용적인 편이라고 말한다. 우선 성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사용자가 많아 트위터에서 성정체성을 드러내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신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문화를 쉽게 따라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거나, 공개로 해 두거나, 서클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정한 특정 팔로워에게만 특정 트윗이 보일 수 있게끔 하거나, 자신의 트윗이 어떤 대상에게 보이는지 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에 대해 얼마나 드러내는지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지만 서클 기능으로 특정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며 해당 트윗에 반응이 오면 이에 따라 자신의 남성 성소수자 팔로워와 자신에 성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I 는 특히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위터는 페이스북 등 다른 SNS 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에서 자신의 얼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공개하며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트위터에서는 우선 자신의 전화번호와의 연동이 필요없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이 알반적이다. 따라서 본인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도 자신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는 다른 SNS 과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식별될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아웃팅에 대한 위험성이 더 낮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더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트위터에서 편하게 자신에 대해 드러낼 수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트위터는 마이크로블로깅의 SNS 로 짧은 글을 올리는 것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이다. 즉, 트위터는 짧은 글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짧게 공유하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기 편한 공간이다.

> H: 좀 더러운 얘기 좀 할게요. '나 오늘 똥 쌈' 이런 것도 이제 트위터에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퀴어로서 혹은 이 사회에 살아가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굉장히 깊은 고뇌를 담은 글을 쓸 때도 있어요. **굉장히 바운더리 넓게 스펙트럼을 넓은 글들이 막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 글을 썼구나 하고 넘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봐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밌네 얘 똥싸 나도 똥쌈! 이러면서 노는**

사람도 있고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다채로워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걸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트위터에서는 주로 트윗으로 일상을 공유한다. 이렇듯 자신의 일상을 짧은 글의 형식으로 블로깅하는 것이기에 마이크로블로깅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마이크로블로깅의 특성을 갖는 글들은 글의 주제와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트위터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용 목적이 다양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트위터상 트윗은 글이 중심이고 사진 업로드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에 대한 자유도도 높다.

C: 그래서 좀 아직은 완벽하게 아웃팅이나 이런 커밍아웃에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좀 쉽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제 편견일 수 있는데 유독 좀 다른 SNS 나 그냥 어플은 너무 그게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사진은 필수고 소개는 필수고 그런 게 너무 선 조건이 많이 깔리는 게 있지 않나. 아직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공간을 좀 최적화할 수 있는 게 트위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하지 않나 해요.

I: 인스타는 훨씬 더 사진 이 매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뽐낼 만한 어떤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느낌? 인스타에서는. 그런데 트위터에서는 약간, **저는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뿌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트위터를 써요.**

여기서 C 와 I 는 트위터를 인스타그램과 비교한다. 인스타는 글을 올리려면 필수적으로 사진과 함께 올려야 되며, 사진이 주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트위터와 달리 서로 팔로우할 때 사진을 보면서 팔로우한다. 따라서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며, 인스타그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을 과시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반면 트위터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글을 통해 다른 남성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가 많은 부류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작용한다. 또한, 얼굴을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웃팅의 위험성이 낮아져 안전한 공간이 된다.

더불어 트위터는 글이 중심이기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낮으며 따라서 아웃팅을 당할 위험성도 낮다. 이는 트위터상에 공유되는 내용과 주제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트위터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단어를 검색해도 정확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익명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많이 드러내지 않은 채 트위터를 활용하는 남성 성소수자에 대해서 글만으로도 아웃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준다. 이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G: **내리다 보면 이런 글이 있었나 싶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있으니까 시인성이 좋긴 한데 뭔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 G: 예를 들면 보면 (트위터 피드를 보여주며)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걸 **계속 피드에서 올리고 올리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만 소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거 하나를 올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사진을 올렸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뭔가 조금 암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은 더 많이 개방되는 것 같고 트위터는 조금은 막 올려도 어차피 많이 안 보니까 다들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더 많이 올려도 되겠다...

G 는 트위터에서 너무 많은 수의 짧은 글이 하나의 피드에 등장하기 때문에 수많은 글 속의 한 계정의 글이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눈에 크게 띄지 않는다고 말한다. 트위터는 게시물 하나 하나의 시인성이 인스타그램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더라도 그 글을 실제로 보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H: 우선 이제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트위터라는 공간이 일종의 일상 생활이면서 **하나의 배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서 작용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벌글도(벌소리 글) 있지만 굉장히 본인의 분노도 담겨져 있고, 본인의 부끄러움도 담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회, **이 현실 사회에서 자신의 그런 모든 감정을 쉽사리 글로 돼 있는 거를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까지 가미가 된다면 더더욱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이걸 소통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올라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뭔가 말로 설령 설명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밀한 퀴어의 커뮤니티가 돌아가는 어떤 구동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소통하는지 혹은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까지 좀 깊게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여기서 H 는 트위터가 마이크로블로깅의 형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데, 개인의 다양한 감정 등에 따라 글에 적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대다수의 성소수자들이 글을 쓸 때 그 자신의 성정체성이 글에 포함되는데 대한민국 현실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하나의 특정한 단어로 설정하고 트위터에서 검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다양하고, 사회에서 넓게 알려지지 못한 주제는 하나의 특정한 단어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 기능을 통해 개인이 식별 가능한 트윗을 찾아내기 힘들다. 또한, 트위터 내에서 거론되는 이야기 주제가 다양한 만큼, 서로 간의 상호작용도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역시 하나의 특정한 키워드로 추려내기 어려우므로 트위터는 성소수자가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된다.

트위터가 남성 성소수자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가 안전한 공간인 마지막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와 다른 SNS 의 인터넷 카페와 달리 마음, 리트윗, 팔로우 등의

행위에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서 개인의 트위터에서 특정한 행동 양태만을 보고 성소수자라는 것을 식별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 D: 다른 계정의 그 아이디를 프로필에 올리면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고 또 그 계정 안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카테고리를 또 하나 만들어서 나는 이 계정에서는 정치 **얘기만 듣고 진짜 나랑 친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해 놓겠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다른 sns 보다도 확실히 솔직한 것 같아요.
> …
> D: 일단 가장 큰 게 익명성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 해도 일단 페이스북은 시작이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추가돼 있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익명성을 띄고 싶어도 못 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알아낼 수 있으니까.

D 는 트위터 회원가입 시 자신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자신과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과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트위터를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되게 한다고 생각한다.

> E: 리트윗한 거 하나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 리트윗을 여러 개를 리트윗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퀴어 문화 축제 소속 직원이구나 소속을 그렇게 부여할 수 있는다면 저는 그 부분은 좀 물음표가 찍히는 쪽이라서**. 그게 역설적으로 성소수자들이 트위터를 더 녹아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원이라든가 응원을 보낸다든가 다른 형태의 어떤 메시지를 나름의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소위 말해 아웃팅의 위험 아웃팅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낮아지는**.
>
> E: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 나중에 리트윗을 해도 한 개의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시지만, 회사 직원이 ‘아니 너 왜 퀴어문화축제 이런 거 하냐’, ‘왜 게이들 이런 야간 개장 이런 거 리트윗하냐’, ‘너 그런 거 아니냐’,

'동성애자 아니냐', '새로운 레즈비언 바가 오픈된 것이 왜 너는 리트윗을 했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그냥 올라왔길래 리트윗한 거다.' 본인이 이제 아웃팅이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기가 유연한데.** 예를 들자면 '야 너 그 뭐냐 레즈비언 카페에 가입돼 있더라', '**너 그 게이들 카페에 가입돼 있더라', 네이버 카페에 했을 때 '그냥 가입했어!'라고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고.**

E 는 트위터를 특히 네이버 카페와 비교하며 설명한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페이지에 있는 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카페에 가입만 해도 아웃팅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트위터의 경우, 특히 자신이 아웃팅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트위터 계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대상의 트윗, 리트윗, 마음, 팔로워, 팔로워의 트윗 등 수많은 정보를 탐색하지 않는 이상 해당 이용자가 성소수자임을 알기 힘들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잘 드러내지 않는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이용자라면 본인이 성소수자라는 것이 파악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내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트위터에서는 남성 성소수자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를 조절할 수 있다. 아웃팅의 위험성을 낮추고 싶으면 마음이나 리트윗만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 좀 더 드러내고 싶은 경우 본인의 사진을 올리고, 멘션을 남기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성소수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 많이 드러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마음이나 리트윗만 하더라도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트위터는 순환되는 이야기 주제와 정보가 검색 기능으로 개인이 식별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남성 성소수자 개개인이 이 커뮤니티 속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들 수 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또한 하나의 안전한 공간이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3.3.2 완전히 안전할 수 없는 공간

하지만 이렇게 트위터에서 남성 성소수자들이 자신에 대해 드러내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트위터는 성소수자들에게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공간일 수도 있다. 우선 한국 남성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팔로우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파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 서로 맞팔이 되는 관계로 발전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기 힘들다.

> D: 그게 트위터를 시작을 해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시작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트위터가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거 아니고서는 정말 허허벌판이거든요**. 팔로잉도 없고 팔로워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뜬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 소개 글을 올리는데 그 자기 소개 글 자체가 본인을 드러내는 글이니까 아마 약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해 D 는 특히 팔로잉이나 팔로워를 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트위터를 시작했을 때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성원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시작 자체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B 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B: (자신에 대해 드러내는 것에 대해)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안심하고 나를 대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주는 거잖아요. 이제 '나도 이쪽이야' '나도 게이야' '나도 성소수자야' 라는 거 표시를 해줘야 상대방도 저 친구랑 나는 그 게이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아니면 **저 친구가 나를 해하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B 는 외부인에게 아웃팅을 당하고 싶지 않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과 남성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최소한 자신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실마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성정체성과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면 트위터에 자신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 이것은 특히 공개 계정의 경우 누구나 볼 수 있고, 이 정보가 악용되어 아웃팅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 C: 너무 이제 확실히 되게 트위터가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 운동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몰랐더라도 알게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찾으려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고** 더 그러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SNS 플랫폼 이름)이나 이런 다른 커뮤에서는 잘 대놓고 공식 퀴어 문화 축제 팔로워를 깠다는 말도 있었대요. **팔로잉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관심 있지 않으면 보통 팔로우잉 자체도 안 하니까 소식을 알고 궁금하니까 팔로잉까지 해놓는 건데** 그런 거. **너무 쉽게 드러난다**. 좀 공간이 다르기에는 너무 무서운 공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 C: **그래서 퀴친소나 게친소의 해시태그가 사라진 이유도 이거였어요**. 이게 아예 한 어떤 커뮤 사이트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캡처 다 돼서 그래서 저희끼리 한번 이렇게 올린 적도 있었어요. 이거 당장 내려라, 해시태그를 지워라. 아웃팅이나 커밍아웃이 무섭다.

여기서 C 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C 는 트위터가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남성 성소수자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운동이나 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많은 하나의 남성 성소수자 집단의 일원으로서 트위터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므로 그 트윗이 자신의 필로잉 및 팔로워의 소셜 네트워크의 범위 밖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남성 성소수자나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그 내용을 악용하여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을 아웃팅시킬 수 있다. 또한, 남성 성소수자로서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기록이 다수 남는다. 이 중 자신의 트윗이나 리트윗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떤 계정이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실까지도 의지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서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거리낌없이 드러내기도 하는데,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소개글을 통해 노골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성정체성 등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자신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업로드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아웃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 I: 나에 대해서 특히 적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사진을 올릴 때도 있고 나의 신분증도 올릴 때도 있는데 그것이 내가 팔로우하고 팔로잉 하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러는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 위험을 감수하고 공유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건 약간 afterthought? 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기는 하죠**.

하지만 I 의 답변처럼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아웃팅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성을 크게 경험하지 않는다. 아웃팅의 위험성이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트위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이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드러내며 성소수자로서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며, 구성원들은 다른 남성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이러한 아웃팅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커뮤니티에 참여한다.

> H: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플랫폼이 똑같다고, 가상 플랫폼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험도는 당연히 언제나 어느 영역에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스북이 되었던 인스터그램이 되었던 트위터가 되었던 이거를 마음을 누르거나 알티를 하면서 외부적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아웃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거는 모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위험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저는 이 트위터를 오래 쓰고 자주 이용하는 유저로서는 다른 플랫폼보다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 는 위에서 언급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H 는 다른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등 다른 이유와 함께 이러한 공간으로부터 안전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참여한다. 또한, H 는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자신이 트위터를 사용하는 동안 이러한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위터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바를 다시 정리하자면 트위터의 기능, 마이크르블로깅 특성, 그리고 트위터에서 형성된 소셜 네트워크 구조 때문에 트위터는 안전한 공간으로 작용한다. 트위터 기능을 통해 자신이 누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험한 존재를 베재하고 안전한 존재를 수용하여 비교적 안전한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드러내는지 조절하며 아웃팅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트위터에서 게시된 글은 그 수가 많고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검색 기능으로 커뮤니티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트위터에서는 성소수자를 아웃팅시키기 어려운 편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자신의 팔로워나 팔로잉, 혹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검증한 사람과 이루어지고, 오가는 대화 역시 이러한 커뮤니티 내에서만 순환하기 때문에 트위터는 남성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드러낸 정보로 인해 아웃팅 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성은 비교적 크지 않다. 다른 성소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이유 등과 같은 이유로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은 계속해서 트위터에서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4.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의 공간의 중요성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이 트위터에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남성 성소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의 공간은 남성 성소수자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첫째, 해당 공간은 성소수자로서 한국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둘째, 자신의 성정체성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정체화를 돕는 공간이 된다. 또한, 이 효과는 비공개 계정인지 공개 계정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상호작용하며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이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가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어떻게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4.1 성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DeVito, et al., 2018).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소외감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감정인 소외감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소외감을 해소한다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며 무엇이든지 숨김없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하고 만나면서 얻는 위안을 말한다 (Hanckel & Morris, 2014).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바로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트위터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성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한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면서 이성애자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트위터에서 풀어낸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분출한다. 셋째, 일상생활 속에서는 서로를 쉽게 알아볼 수 없지만, 트위터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다 같은 성소수자이므로 다른 성소수자를 찾아 만난다. 이러한 세 가지의 방법의 효과의 수준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계정의 비공개 공개 설정 여부, 팔로워 수, 그리고 성정체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4.1.1 일상생활에서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위안을 얻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억압받는 감정을 느끼는데, 이렇게 억압된 감정을 트위터를 통해 방출한다. 둘째, 다른 성소수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을 주고받으며 위안을 받는다. 셋째, 평상시에 성정체성을 숨기느라 다른 성소수자를 쉽게 만나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지만, 트위터에서는 다른 성소수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 R: 그러면 그런 아웃팅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대놓고 이제 자기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말하는 건가요?
>
> G: **아무 데서도 그런 말을 못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고 친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지인들한테는 당연히 말을 못하고 직장 동료, **아무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 그 관련 문제가 된다고 해도 항상 나는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로 바꿔야 되고 게이 친구를 일반 친구로 바꿔야 되고 남자를 또 여자나 다른 제 3 의 인물로 바꿔야 되고 저도 (트위터 친구의 이름)님을 가끔 선생님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거짓말로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게. **저도 가끔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SNS 에서 인스타는 사실 거짓말 그**

자체잖아요. 그 자체로 과시하고 숨기는데 게이들은 사실 그거 지쳤거든요. 이미 집에서 숨기고 가족, 친구들한테 숨겨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숨겨야 되니까 이게 트위터에서만큼은 좀 자유롭고 싶고, 이거는 내 모든 걸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있는 그대로를 대하고 싶다, 트위터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G 는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 및 사회적 소외감에 대해 말한다. G 는 트위터가 아닌 현실 공간에서 자신에 대해 숨기며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트위터에서는 자신에 대해 숨길 필요 없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성소수자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내 모든 걸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있는 그대로를 대하고 싶다'는 욕구가 해소된다고 한다. 또한, G 는 트위터를 인스타그램과 비교한다. 여기서 인스타그램이 트위터처럼 편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는 인스타그램은 자신을 과시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숨겨야 한다는 것이다.

]: 가령 이제 부조리함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을 가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단란한 주점 같은 데를 가자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단순하게 그냥 그 공간을 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에 굳이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남성애자라서 굳이 관심이 없습니다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차별 의식과 수많은 억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사회에서 말은 못하지만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오늘 누구 과장이 다 가라오케를 가자고 했는데 짜증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제 거기서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퀴어니까, [공감하는 톤으로] **'아 고생했겠다', '게이가 가서 뭐 하겠니?' 이러면서 이제 다들 이런 얘기하고 그런.**

J 는 트위터에서 남성 성소수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한다. 남성 소수자들이 트위터에서 나누는 이야기에는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내용이 글의 주된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느끼는 억압감을 트위터에서 해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같은 남성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공감을 받고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C: **이 공간에 굳이 멘션을 달지 않아도 내가 이 말을 적었다면 내 팔로워들은 이걸 읽어줬잖아요. 들어준 거고 잠깐 봤잖아요. 그러면 나 전 말을 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말 좀 해본 것 같아요. 거기서 주는 해방감과 스트레스의 해소가 있었어요**

> C: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구나라는 그 감정이 좀 중요한가 보다 했었어요**. 좀 외로움 중 하나인가? 내가 너무 사람을 안 만나서 누군가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게 필요했나 싶어서 더 적어보지 않았나 하는 거거든요… 알아준 느낌? 알아가는 느낌?

여기서 C 는 J 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위터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감 받는 느낌을 느끼는데, 쌍방향 상호작용이 없어도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트윗으로 적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유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다른 성소수자들과 같이 참여하는 공간이므로 다른 성소수자들이 볼 수 있는 타임라인에 트윗을 올렸을 때 누군가가 봤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 J: 예를 들면 퀴어 퍼레이드를 갖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누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감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런 페티쉬를 좋아해 올리면 사람들이 자기도 이거 좋아한다 이게 좋아한다는 게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약간 글로벌 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나하고 다른 국내에서도 있고 외국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안도감 그것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소수자들에게 트위터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2 성적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공간

더불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편하게 드러내며 성적 욕구를 분출하며 해소할 수 있다. 이는 트위터에서 성적 컨텐츠에 대한 검열 및 규제가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덜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H: 저는 두 가지의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계라는 문화 그러니까 특히나 굉장히 섹슈얼한 그런 쪽으로 해서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트위터도 있다면...(후략)

> G: 예를 들어서 관계를 맺을 때 저는 트위터에 들어오기 전까지만해도 관계는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랑 맺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랑 정말 사랑 없이 관계에 약간 육체적 만족만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트친박이라고 하던데 트위터 친구끼리 섹스만 하는 그런 관계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H와 G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있는 소위 '뒷계'라는 문화를 논한다. 뒷계는 뒷계정의 약칭으로 자신의 얼굴을 올리지 않고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계정이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는 '트친박'이 성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적 욕구의 분출이 트위터에서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J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R: 그러면 왜 다른 sns 보다 트위터가 정보가 좀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J: **주재가 별로 없어서**. 예를 들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페티쉬로 얘기를 하자면 인스타나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면 **금방 계정이 잠기다던가 사진이 지워진다거나 하는 게 있지만 트위터는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물론 심한 건 잘리겠지만 그런 주제에 대한 자율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색하고 그 이전 정보를 찾는 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J 는 트위터 계정들의 신분적 동등성을 이야기한다. 트위터에는 업로드된 내용에 대해 검열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없으며 모든 계정은 팔로잉과 팔로워의 관계로 동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SNS 만큼 게시물에 대한 검열이 엄격하지 않다. 따라서 올리는 내용에 대한 자율성이 크다는 특성에 착안하여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은 트위터를 성적 욕구를 분출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4.1.3 다른 성소수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

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을 다른 성소수자를 만나는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히 자신과 같은 성정체성을 가진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같은 남성 성소수자와 친구 관계를 형성하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남성 성소수자로서의 소속감을 느낀다. 둘째, 트위터는 기능이 다양하므로 시차, 이동에 대한 어려움 등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친구의 범위가 넓다. 셋째,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친목 관계에 있어서 맞팔로 친구 관계부터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H: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작한 동기가, 퀴어계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퀴어라는 존재가 이렇게 제한적인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 혼자밖에 없나?라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작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아까 커뮤니티 얘기를 하면서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는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을 어쩌면 가상 공간 플랫폼이 이제 트위터에서 얻어가는 것 같아요. 퀴어가 나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구나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네 알아가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처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트위터를 접근하지 않을까.**

D: 일단 평범한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성소수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관련 이야기를 하거나 관련 걱정거리 얘기하거나 아니면 관련 농담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서로 같은 사람들이고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일단 그거 하나만으로도 소속감이 큰 것 같아요.** 나랑 같은 **나 혼자 되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난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데, 같이 겪고 있는 문제도 비슷하고 같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평범한 친구들보다는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H 와 D 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로서 한국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독감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감은 트위터에서 다른 성소수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해소된다고 말한다. 현실에서 보지 못한 남성 성소수자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낌과 동시에 다른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지하며 소속감을 느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성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에 대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깊이

탐구하게 되면서 남성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안정을 찾는다.

> G: 보통 이쪽 분들이 트위터 친구가 되는 경우가 썸타기 직전의 관계?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이랑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완벽히 친구는 아니고 약간의 미묘한 관계로서 트위터 친구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 I: 사실 페이스북도 게북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인스타도 정말 데이팅 어플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고 트위터도 심지어 그렇고 트위터는 훨씬 더 수위가 높잖아요. 어떤 계정들은. 그렇죠?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애인을 찾기 위해서도 있을 것 같고 꼭 애인을 찾기 위해서** 1 순위 목적은 아니겠지만 게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 특히 게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면 나와 비슷하고 나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약간 **어떤 궁극적으로는 약간 유성애자들의 경우 유로맨틱한 사람의 경우 애인 상대를 찾기도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 (후략)

G 와 I 는 트위터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기반으로 형성할 수 있는 관계의 유형에 대해서 말한다. 여기서 가능한 인간관계는 단순 친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까지 포함되며, 이는 역시 자신의 성정체성이 기본적인 커뮤니티 참여 자격이기 때문에 형성 가능한 관계이다. 여기서 데이팅 어플처럼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지 못하는 성소수자를 만나는 용도로 트위터를 이용하는데,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상호작용하다가 디엠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취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4.2 성정체성 탐구 및 정체화할 수 있는 공간

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라는 공간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므로 이용자 본인의 성정체성과 한국에 사는 남성 성소수자로서의 한층 더 알아가고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같은 성소수자를 만나거나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트위터를 통해 참여하거나, 이에 대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4.2.1 다양한 성정체성 및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이와 관련하여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다. 이는 크게 현실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접하기 힘든 정보와,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사는 남성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에 대해 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트위터는 다양한 성정체성의 종류와 나아가 학교의 성교육 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동성 성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예방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 H: 제가 이전에 안드로섹슈얼[10]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남성성에 대한. 근데 이제 호모플랙시블[11]로 조금씩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일단 안드로 남성성이라는 어찌 보면 특성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런 특성보다는 어떤 바디에 대한 끌림이 있겠구나, 있구나라는 게 조금 최근에 느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안드로섹슈얼과**

---

[10] 안드로섹슈얼(androsexual)은 남성성에 성적 이끌림을 느끼는 정체성을 일컫는다.

[11] 호모플렉시블(homoflexible)은 주로 동성에게 성적 이끌림을 느끼지만 가끔 이성에게 성적 이끌림을 느낄 때도 있는 성정체성을 일컫는다.

호모플렉시블이라는 단어를 물론 검색도 했지만 트위터에 올라온 거 이 단어는 무슨 단어지라는 걸 또 찾아보면서 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재정체화에 조금 영향력을 미치긴 했었죠.

…

R: 주로 그런 정보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올리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정보가 올라오는?

H: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해 놓은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그런 거 **정보가 담긴 블로그를 이제 알티**해 주시니까 리트윗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트위터리언 분들 중에는 **트친소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쓰시는 과정에서 그런 단어들이 좀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트윗에서 저는 시스젠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라고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요. **다만 이제 그런 글들이 일부 툭툭 올라올 때가 있죠.**

여기서 H 는 트위터에서 자신이 어떤 성적 이끌림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하며 트위터가 자신이 정체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특히 H 의 경험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접하게 된 정보를 통해 이러한 성정체성을 일컫는 용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느끼는 성적 이끌림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H 에 따르면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접할 수 있는 성정체성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 우선 특정 성정체성 용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트윗으로 업로드하기도 하고, 이것이 리트윗을 통해 전파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개인 타임라인에 등장하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해당 용어들을 자신의 프로필이나 소개글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남성 성소수자들은 성정체성에 대한 용어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배우고 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용어 및 글 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 성정체성에 관련하여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C: 그리고 '나는 여자라는 몸의 구조가 싫은 거다', '그게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트랜스젠더처럼 남자 여자 유도의 그런 생식기가 다 있고

장발이면 내가 만나볼 수 있나', '**이런 고민 안 해봤니?**', '**너는 잘생긴 그런 외관이 좋은 거야? 아니면 하나의 남성의 몸의 구조가 좋은 거야? 이런 고민 안 해봤어?**', '나는 외관은 아닌 것 같거든' '나는 남성의 몸에 구조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외관은 여잔데 남성의 몸의 구조가 좋은 거면 내가 흔히들 말하는 여장을 하는 CD 라는 사람도 내가 만나볼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안 해봤니? 나는 그래서 트위터를 한 거야'라고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C 는 트위터에서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성정체성에 대해 토론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한다. 특히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가 정화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G: 이쪽 SNS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원했던 거는 내가 게이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도 게이한테 한번 가봐야 내가 게이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인 분들한테는 **게이들을 만나봄으로써 내가 정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이니까 게이이니까, 나는 게이 아니겠지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G: 보지 않으면 보지 않을수록 더 편견만 생기잖아요. 저도 게이를 만나기 전에는 섹스에 미쳐 있고 저런 거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만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사람도 있고 되게 배려가 많으신 성격 좋으신 예쁜 분들도 많고 물론 개싸가지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 거기에서 이제 **나는 그러면 안 돼라는 층이 깨지니까 오히려 선택하기 쉬워졌어요.** 오히려 거기서 하면서

내가 이성애자라는 생각이 돼도 나 이성애자구나 해서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더 편해졌어요. 내가 동성애자다 이성애자다 아니면 뭐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범성애자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좀 더 쉬워지고 또 5 년 뒤에 제가 이성애자로 다시 가고 싶다고 해도 정말 편하게 그냥 이제 내가 여자가 좋아졌나 보다 하면서 **이전에는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 없어졌죠. 그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게 하는 거다.**

G 는 직접적으로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다른 성소수자들과 만나고 상호작용하면서 남성 성소수자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데, 이러한 편견을 가지게 된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체성 혼란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트위터는 성정체성 자체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한국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다루지 않는 동성 성관계에 관련된 성병, 성관계 등 남성 성소수자에 관련된 정보 및 성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D: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소수자 관련해서 교과서로 배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런 내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물어볼 공간이나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보통 그런 문제들이 성적인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는 성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이랑 하기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매너 없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

D: (올리는 글의 내용이) **성병 관련 이야기도 있고. 왜냐하면 어디 이거를 가족이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조금 껄끄럽기도 하니까 그래서 성적 얘기도 있고 아니면 관계를 가질 때, 섹스를 할 때의 궁금증이라든가,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할 때 어떤 제품이 좋냐 제품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거?** 궁금증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고 본인 몸이 뭔가 이상할 때 그런 거는 조금 스트레스 젠더 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약물을 복용을 하거나 할 때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숨김 없이 하는 것 같아요.

D 는 현실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성소수자에 관련된 성교육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트위터의 장점 중 하나로 꼽는다. 특히 일상에서는 성병이나 성관계 등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하면 아웃팅을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쉽게 관련 성교육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트위터에서는 성소수자에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의 주제가 오가며, 그 결과로 성소수자들이 안전한 성관계를 갖는 등 성소수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즉, 트위터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남성 성소수자로서 성교육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로서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4.2.2 옳고 고름을 토론하는 공간

또한, 트위터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성소수자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C: (트위터 커뮤니티에 처음 참여했을 때) 모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배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처음부터 그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완벽하게 이건 안 좋은 거고 이건 좋은 거야 다 알고 오는 10 대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약간 저희 말고 요즘 애들은 또 빨라졌다 해서 더 어린 애들이 이제는 빠르게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막**

초등학생도 보이고 중학생도 보이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무지에서 나오는 혐오가 분명하게 있어요. 혐오 단어나 문장이나 이건 진짜 잘못된 건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표현하는 것들이나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본인이 전시를 해보고 누군가가 **알려주면서 한 번은 이렇게 어떠한 질타를 받아봐야 배워가는** 것 같고, **알아가는 것 같고 물론 거기서 본인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화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해 준 사람은 있었으니까 그걸 저는 그게 유독 트위터에 발달되지 않았나 싶은 거거든요.**

C 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라는 공간이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C 는 20 대 중반 남성인데, 트위터 커뮤니티에 새로 참여하게 된 사람 중 10 대 남성을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나이가 어려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이 짧은 10 대 커뮤니티 구성원이 가진 무지함이 언급되는데, C 는 해당 구성원으로부터 혐오 발언, 게이 술집 활동 등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행위를 했다. C 는 이러한 행동들은 트위터 커뮤니티 내 다른 구성원들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개선되며, 이러한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R: 트위터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H: 특정 단어로 하면 폐쇄적이지만 자정 활동을 하는 자정적으로, **자정하는 스스로 이제 정화시키려고 서로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해주는 그런 공간이다가 첫 번째고요.** (후략)

…

H: 아무래도 성소수자 커뮤니티 중에서,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트위터가 꽤나 진보적인 쪽에 속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편에 존재하겠지만 제가 봤었던 커뮤니티, 제가 보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든 퀴어 관련 문제가 되었든 혹은 그 커뮤니티 내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하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여야지 싸워야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건 투쟁이 아니라 정의로움에 대한 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 다른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너무 예민해 너무 완전 화가 나 있어 항상 이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H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성소수자로서 올바르게 사는 자세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인권과 사회 문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성소수자 집단의 일원으로서 인권과 사회 문제에 올바른 생각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는 경향을 말한다. H 가 언급한 '정의로움' 추구는 어떻게 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정의롭게 싸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말하며,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이에 관련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비판하고 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성정체성 뿐만 아니라 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회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까지 고민할 수 있다.

4.2.3 성정체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의 공간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인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인권 집회, 인권 활동, 성소수자 모임 장소, 성소수자 술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I: 그리고 내가 트위터에다 적는 글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 이게 한 성소수자의 발언이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 팔로잉들을 만들거나 트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꼭 애인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실 되게 페미니즘 관련한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트위터에서. 특히나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난적인 발언들을 하는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있었고 아니면 그들이 페미니스트를 자신들을 그렇게 페니스트로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쌓아 오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약간 **내 목소리가 그냥 약간 시민의 온라인 시민 1 이 아니라 약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밝히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약간 **이 계정기에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면서 활동하는 것도 약간 하나의 그런 인권 활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사회 감수성, 담론을 조금 더 증진시키고 있는 그러한 활동들에 기여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I 는 트위터를 인권 활동을 위한 장으로 이용한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회 문제나 인권에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로서 다양한 사회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I 의 정체성은 이분법적인 젠더 구분에 순응하지 않는 젠더퀴어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남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트위터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큰 장벽 없이 진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즉, I 는 젠더퀴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자신의 젠더가 남성이기에 트위터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가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및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이처럼 트위터에서 성소수자로서 가능한 상호작용이 매우 다양하다.

I: 정말 내가 여기에서 훨씬 더 성소수자들과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교류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한국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이나 이벤트 행사들에 대한 정보가 불균형하게 퍼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유가.**

…

I: (정보에 대해) 성소수자 업소라든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하고 있는 사회운동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I 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정도와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생기는 정보량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성소수자 업소, 성소수자 인권 행사를 포함한 성소수자 행사, 그리고 오프라인 사회운동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보지만 트위터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관련된 담론이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를 접하는 것이 수월한 편이다. 이처럼 한국 남성 트위터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성소수자들에게 특수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남성 성소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의 장으로 작용한다.

4.3 트위터를 통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성정체성 탐구에 대한 변수

하지만 외로움 해소, 성정체성 탐구에 대한 기회 확장 등 트위터 커뮤니티 공간의 효과와 기능은 이용자의 성정체성, 이용자의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계정 여부, 팔로워 수, 그리고 이용자가 트위터상에서 공개하는 개인 정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해당 변수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의 범위 밖이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젊은층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므로 이 절에서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한다.

> C: (비공개 계정과 공개 계정의 진입장벽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해요. 좀 우스갯소리로 저희도 그러거든요. 지금은 진입 장벽이 팔로잉 100 인데 팔로워 5 천인 사람보다 팔로잉 팔로워 각각 50 50 인 사람이 더 무섭고 어렵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안 들이겠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난 아는 사람하고만 꾸준히 갈 거고 정말 딱 이 사람하고만 완벽하게 속한 채로 소통할 거야 좀 고정이 돼 버려서,** 저도 그러기는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좀 **오랜만에 (오프라인 성소수자 공간에) 나갔는데 지인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번 놀아보니까 괜찮으면 이제 그때 받아주는 거지 아예 모르는데 신청을 걸면 다 엑스 누르거든요.**

새로운 사람은 더 이상 받지를 않아요. 그게 좀 잠금 계정이지 않나 해요. 그런데 이제 **공개 계정은 팔로워가 왔는데 뭐 괜찮고 재밌네 하면 맞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완전 다른 진입 장벽이지 않나.**

C 는 비공개 계정과 공개 계정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이야기한다. 비공개 계정은 커뮤니티 내에서 일정 수준의 커뮤니티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 사람이며, 본인의 사회적 관계망 내의 이용자들과만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계정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한다. 비공개 계정을 팔로우를 하려면 팔로우를 신청한 후 해당 이용자가 수락해야 상대방의 팔로워가 될 수 있다. 이는 상대방과 소통하는 데에 있어 진입장벽이 된다. 이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먼저 만나는 등 먼저 친분을 형성한 후 서로 트위터 아이디를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한다. 반면 공개 계정의 경우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고 팔로우도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방을 먼저 팔로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팔로우 신청을 별도로 수락할 필요 없이 바로 맞팔할 수 있다.

이들 요소에 따라 커뮤니티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얻는 사회적 소외감 해소의 효과, 성정체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답변에서 자신에 대해 많이 드러내고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면 성소수자 업소,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I 의 인터뷰 답변에서 밝혀진 바 있다.

B: 마음은 비공개일 때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쨌든 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공개 계정을 하는 거고 안전에 신경 쓰자고 생각을 하면 비공개일 때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하긴 하죠.

…

B: 아까도 말했듯이 내 글이라든가 내 사진이라든가 뭐 내 의견이 밖으로 나가진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지 않는다, **어쨌든 이제 비공개 계정을 하면 내 글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보여지잖아요.** 내 팔로워라는 사람한테만 여지니까 이거를 캡처해서 나가는 건 가져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굳이 이 글에 대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공격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B 는 계정이 공개일 때는 다른 사람들과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반면 비공개일 때는 마음 기능 사용이 더 편하다고 말한다. 계정이 공개일 때는 자신이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행위가 기록으로 남고 서클에 올리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팔로우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비공개 계정의 경우 자신과 선택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트윗과 프로필이 보이며 자신이 올린 트윗에 대한 리트윗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트윗과 프로필이 위협적인 이용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다. 공개 계정의 경우 계정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면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비공개 계정의 경우 이미 친한 사람들과만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효과를 잘 경험할 수 없는 대신에 자신의 글이 위협적인 이용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글로 적으면서 얻는 사회적 소외감으로부터의 해방감은 더 클 수 있다.

> A: 그런 것도 있잖아.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트위터에 요즘에 그런 글을 안 올리거든요. **그런 어두운 얘기나 이런 것들이나 내 생각에 들어가는 글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팔로워가 많잖아요. 적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글을 올려도 욕을 먹더라고요 이제. 그냥 다른 사람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글을 잘 안 올리는데 요즘에 근데 사실 계정이 몇 개 더 있잖아요. 그 계정에 올리는 거 보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후략)

A 의 팔로워는 1 만 명 이상으로 많은 편이다. 그만큼 A 가 서클 외에 올리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 누구나 인용 리트윗 기능으로 지적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올리는 내용에 대해 팔로워가 적을 때보다 조심스러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A 도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들처럼 트위터에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으면서 사회적 소외감 및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은 자신의 공개 계정으로는 실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계정이 팔로워가 많으면 트위터로부터 얻는 해방감은 적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트위터 커뮤니티에 대한 전체적인 탐구를 목적을 하므로 본 연구로는 차후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가능성만을 제시한다.

무성애자인 E 역시 트위터를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 H: 직장 동료들한테도 얘기할 때 그냥 '가 봤는데 재밌더라'라든가 와 근데 비가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눈치도 없냐, 저는 타이밍 놓쳐서 행진을 따라 하지 않았는데 '행진 딱 끝나니까 비 그치더라고, 말이 돼?'이라든가.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크게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편이라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앵섹슈얼의 특징일 수 있는데 네 뭘 특별히 감출 필요가 없어요**. 크게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뭘 얘기를 하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
> …
>
> **H: 딱히 양쪽에 다 끌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카테고리는 가능한 영역이 일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역인 거죠.**
>
>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동성을 좋아해가지고는 거기서부터는 사회적으로 공개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영역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트위터에서 함으로써 성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무성애자인 H 의 경우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트위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다. 이에 대해 H 는 자신은 어떠한 성별에게도 성적 이끌림을 느끼지 않으므로 그저 연애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지나치게 이야기하지도, 숨기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있는 커뮤니티 구성원 중 성정체성에 따라 트위터를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들 변수가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 밖이며, 추후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지금까지 젊은층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트위터의 기능과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는 두 가지의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커뮤니티 구성원이 공유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된다. 여기서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 자격은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남성 성소수자거나 앨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트위터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는 남성 성소수자나 앨라이라는 커뮤니티 참여 자격에 기반하여 팔로우와 팔로잉 기능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인간 관계를 맺는데, 이 기능은 구성원들을 사슬처럼 연결하여 하나의 커뮤니티로 결속한다. 즉,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남성 성소수자나 앨라이라는 자격에 대한 소유 여부는 커뮤니티를 결속하는 역할을 하며 이 자격을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트위터 사용자가 해당 커뮤니티에 진입 가능성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남성 성소수자들은 트위터의 팔로우, 마음, 리트윗 등 다양한 트위터의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남성 성소수자 혹은 앨라이를 수용하고, 비성소수자 및 남성 성소수자에게 위험한 존재를 배제하며 형성한다. 이렇게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트위터의 마이크로블로깅의 기능을 활용하여 성소수자에게 위험한 존재가 커뮤니티에 접근하기 어려워 아웃팅의 위험성이 낮은 남성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다른 계정을 팔로우할 때 상대방이 성소수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한 후, 상대방이 성소수자인 경우 팔로우 신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성소수자의 경우 팔로우 신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성정체성으로 커뮤니티가 분리되면서

비성소수자가 남성 성소수자를 아웃팅시킬 수 있는 위험도가 낮아진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트위터의 다양한 마이크로블로깅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데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팔로우 기능으로 커뮤니티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트위터에 업로드되는 글들은 짧은 줄글이 주를 이루므로 그 양이 방대하여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남성 성소수자를 색출해내기 어렵다. 이 역시 트위터가 남성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인 이유이다. 이에 트위터에 존재하는 다른 집단도 같은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안전한 공간을 형성할 수 있지만,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안전성은 한국 남성 성소수자에게 아웃팅의 위험성이 낮은 공간으로서 한국 남성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트위터의 기능 및 특성 때문에 트위터는 남성 성소수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한국 남성 성소수자들이 트위터의 특정한 특성들을 활용하면서 자신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한 공간에서 남성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편하게 드러낸 채로 다른 남성 성소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남성 성소수자로서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 및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탐구하고 정체화할 수 있다. 또한, 트위터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성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가는 만큼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성정체성 용어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성소수자와 만나면서 자신이 성정체성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더불어 트위터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성소수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성소수자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성정체성 이외에도 트위터는 남성 성소수자에게 성소수자 모임 장소, 오프라인 활동, 인권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며 온라인으로 인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련하여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므로 트위터는 남성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표현하고 현실에서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소속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5.2 연구의 의의, 한계 및 미래 연구

본 연구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안전한 공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안전한 공간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며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양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남성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퀴어와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다른 SNS 플랫폼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본 연구의 발견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남성 성소수자는 외부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공간에 진입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가 10 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한국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성소수자들이 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경험이 포함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의 연구 참여자부터는 눈덩이표본추출법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터뷰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30 대의 연구 참여자는 2 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의 성정체성은 다 남성 남성애자였기 때문에 본 연구 내용은 다소 남성 남성애자의 입장과 경험에 치중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민족지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가 개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성정체성의 연결성을 밝혀냈지만, 이러한 연결성의 결속성 및 이에 대한 수준은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밝혀내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남성 트위터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추후 양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변수에 따라 트위터에서 가능한 상호작용과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간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성정체성 탐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의 효과의 차이 및 이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무성애자, 양성애자 등을 포함 한국

남성 성소수자 트위터 커뮤니티의 구성원인 다른 성소수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팔로워 수 등의 요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밝혀낸 성정체성, 계정의 공개 비공개 여부 등과 같은 변수가 이후의 추가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김지은, 2020. 대학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학생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1), pp. 155-176.

박준홍, 백지혜, 이지나, 정희선, 2021. 코로나 19 집단감영 사례를 통해 본 소주사에 대한 사회공간적 배제: 이태원 클럽 감영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55(2), pp. 137-154.

손소연, 이지하, 2016.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참여 의미에 대한 연구: Giorgi 현상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2), pp. 233-256.

이재신, 2007.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공동체 역할에 관한 연구: 스포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7(4), pp. 79-111.

이현진, 김명찬, 2021. 성소수자관련 질적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pp. 407-418.

전종한, 서민철, 장의선 & 박승규, 2008. 희미해진 영토에서 지리학의 모습 찾기: 지리학의 개념. ,: *인문지리학의 시선*, p. 43.

정부통신정책연구원 a, 2021. *2021 년 연령대별 SNS 이용형태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관한 연구*

Adams, W., 2015. Conducting Semi-Structured Interviews. In: 4th, ed.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pp. 492-505.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1st ed. London: Verso.

Aronsson, F., 2020. *Do I look white? Creating community in online safe spaces for racialized youth.* Ph.D.: Stockholm University.

Bauman, Z., 2008. In: *The Art of Life.* Polity, pp. 120-121.

Blackshaw, T., 2010. *Key Concepts in Community Studies.* 1st ed. s.l.:SAGE Publications Ltd.

Chaplin, T., 2014. Lesbians Online: Queer Identity and Community Formation on the French Minitel.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23(3), pp. 451-472.

Constant, D., Sproull, L. & Kiesler, S., 1996. The Kindness of Strangers: The Usefulness of Electronic Weak Ties for Technical Advice. *Organization Science,* 7(2), pp. 119-135.

DeVito, A. M., Walker, M. A. & Birnholtz, J., 2018. 'Too Gay for Facebook': Presenting LGBTQ+ Identity Throughout the Personal Social Media Ecosystem. *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2(CSCW), pp. 1-23.

Drisko, J. W., 1997. Strengthening qualitative studies and reports: Standards to promote academic integrity.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3(1), pp. 185-197.

Drushel, B., 2010. Virtually Supportive Self-Disclosure of Minority Sexualities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ing Sites. In: *LGBT Identity and Online New Media.* 1st ed. New York: Routledge, pp. 63-72.

Frost, D., McClelland, S., Clark, J. & Boylan, E., 2014.

Gray, M. L., 2009. *Out in the Country: Youth, Media, and Queer Visibility in Rural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Green, M., Bobrowicz, A. & Ang, C. S., 2015.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online: discussions of bullying

and self-disclosure in YouTube videos.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34(7), pp. 704-712.

Hanckel, B. & Morris, A., 2014. Finding community and contesting heteronormativity: queer young people's engagement in an Australian online community.. *Journal of Youth Studies,* 17(7), pp. 872-886.

Hartal, G., 2018. Fragile subjectivities: constructing queer safe spaces. *Social & Cultural Geography,* 19(8), pp. 1053-1072.

Heller, A., 1999. *A theory of modernity.* Malden: Blackwell Publishers.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ume 20, pp. 111-123.

Huberman, B., Romero, D. M. & Wu, F., 2009. Social Networks that Matter: Twitter Under the Microscope. *First Monday,* 14(1).

Ipsos, 2021. *LGBT+ Pride 2021 Global Survey - A 27-country Ipsos Survey*

Jones, Q., 1997. Virtual-Communities, Virtual Settlements & Cyber-Archaeology: A Theoretical Outlin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3(3).

Kelly, B., Carpiano, R., Easterbrook, A. & Parsons, J., 2014. Exploring the Gay Community Question: Neighborhood and Network Influences on the Experience of Community among Urban Gay Men. *The Sociological Quarterly,* 55(1), pp. 23-48.

Lewis, R., Sharp, E., Remnant, J. & Redpath, R., 2015. 'Safe Spaces': Experiences of Feminist Women-Only Space.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20(4), pp. 105-118.

Lucero, L., 2017. Safe spaces in online places: social media and LGBTQ youth.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9(2), pp. 117-128.

Marwick, A., 2014. Ethnographic and Qualitative Research on Twitter. In: *Twitter and Society.* New York, pp. 109-122.

Miño-Puigcercós, R., Rivera-Vargas, P. & Cobo Romaní, C., 2019. Virtual Communities as Safe Spaces Created by Young Feminists: Identity, Mobility and Sense of Belonging. In: 1st, ed. *Identities, Youth and Belonging, Studies in Childhood and Youth. Palgrave Macmillan.* s.l.:Palgrave Macmillan Cham, pp. 123-140.

OECD, 2020. *How does Korea compare?. Over the Rainbow? The Road to LGBTI Inclusion*: OECD.

Robards, B. et al., 2020. Tumblr as a Space of Learning, Connecting, and Identity Formation for LGBTIQ+ Young People. In: *a tumblr book: platform and cultures.* 1st ed. s.l.: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281-292.

Rupp, L. J. & Taylor, V., 2016. Drag Queens and Drag Kings. In: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ology,* pp. 1-4.

Sibona, C., Walczak, S. & Baker, E. W., 2020. A Guide for Purposive Sampling on Twitter.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ume 46, pp. 537-559.

So, 2022. *Share of South Koreans supporting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s from 2001 to 2021,* Statista.

The Roestone Collective, 2014. Safe Space: Towards a Reconceptualization.. *Antipode,* 46(5), pp. 1346-1365.

Twitter, 2021. *Twitter Help Centre.* [Online]
Available at: https://help.twitter.com/en/using-twitter/account-

suggestions
[Accessed 03 11 2022].

Wellmann, B., 1979. The Community Question: The Intimate Networks of East York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5), pp. 1201-1231.

Wellmann, B., Carrington, P. & Hall, A., 1988. Networks as Personal Communities. In: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0-184.

Abstract

Forming Twitter communities – the young Korean male sexual minority's experience

Anthony Lau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offers an ethnographic study examining how young Korean male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have created an online community and safe space on Twitter where community members can freely express and explore their sexual identity. This research finds that community members – comprised mainly of gay male population – forms an online community by allowing only gay males or allies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by utilising Twitter' s microblogging features. In this process, Korean male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are accepted into the community, whilst those who pose the risk of outing community members are excluded. As a result, they form a social network that enables community members to freely talk about, express, and explore their sexual identity in an online safe space.

Keywords : Gay Korean Males, Community Formation, Online Safe Spaces, Sexual Minority Safe Spaces, Sexual Identity Expression, Sexual Identity Exploration
Student Number : 2020-21321

Acknowledgements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thank my committee members Professor Han, Professor Eun and Professor Oh for giving me guidance throughout the thesis writing process.

I would also like to thank my friend, Gyuwon for helping me edit and proofread this thesis.

Finally,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10 interview participants. I would have never been able to complete this thesis without you all. Thank you for creating a safe space for all queer males in Korea and thank you for giving a community and home to all those who may not have one.